朝鮮日報 夕刊

필元帥의急逝로 歐洲政局大不安

히틀러의積極的行動豫想코 倫敦側에悲觀論擡頭

獨波關係에異狀?

【倫敦十三日發聯合】倫敦外交界는 필수드스키元帥의 急逝에依하야 波蘭을中心으로한 國際情勢에鑑하야 多大한 不安에 싸이게되엇다고 보고잇다 特히 故元帥의 親獨政策이 急轉되는結果 獨逸과의사이에 새로히 國境線에關한 紛爭이 發生할것이라고 外交界에서는 벌서부터 悲觀論이 擡頭하엿다 右는 히틀러總統이 이것을機로 포메라니아에對하야 從來의 猶豫的態度를 一擲하고 積極的活動을 開始하게될 것이오 또 波蘭은 從來 獨逸、佛國間에 介在하야 兩者의 勢力均衡을 保持한立場을 持續할수업게되어 獨波의關係로부터 延하여는 獨逸、佛蘭西와歐洲諸國間의 國際政局은多大한 不安을 惹起할可能性이 濃厚하게되엇슬이다 如何든 歐洲諸國間의 國際關係는 필수드스키元帥의 逝去를 契機로 再整調가 必要하게되엇다고 보이어 今後의推移는 多大한注目을 끌고잇다

侵略國不援助 相互協定案討議

東歐로카르노條約案에修正 佛蘇兩外相會談內容

【電通莫斯科十三日發】라발佛外相과리트비노프蘇聯外相과의 第一次公式會談은 十三日午後 蘇聯外務省에서 一時間半에 亘하야 行하엿는데 右會談의 가장 重要한 收穫은 停頓된 東歐羅巴安全保障條約案에 若干의修正變更을 加하야 이것을살려서 新條約의 成立可能性이 强하게 認識되엇슨것이다 新安全保障體制는 蘇佛相互援助協定이라고 부르는데對하야 이를테면 차라리侵略國不援助相互協定이라고 稱할것으로이參加國은 侵略을受한나라에 軍事行動을 包含하는廣汎的 援助를 與하는義務는負하지안는 代身에侵略國이 이行爲締約에不便을感하도록 侵略國과의 援助를拒否하는 消極的義務를 負하는것이될터로

一、武器其他의軍需材料供給禁止
一、起債拒絶
一、軍事行爲를 有利하게할一切의 經濟取引의禁止

等의細目이 規定될것으로豫想되고잇는데 事實上 새로운一大戰時經濟블락의 豫約을 意味하는것이라고 解釋된다 그리고佛蘇外相의會談은 右問題를 中心으로한歐洲全般에及하는 平和維持를目的으로하는 新佛蘇協約의目標를基礎로各種의 國際的懸案의 處理에 對하야 隔意업는 意見을交換하엿다 第二次公式會議는 明十四日行하고 또이와並行的으로스탈린書記長 모로토프首相과의 會談을 行하기로되엇다 (寫眞은 佛、蘇兩外相)

발칸協商國 會議終了

【電通부카레스트十三日發】발칸協商國會議는 今日도續開하고相互通商의促進、航空郵便改善과、발칸中央銀行設立의 可能性等經濟問題의討議를 行하고 이로써 四日間에亘한 會議의幕을 닫고 코뮤니케를 發表하엿는데 이措辭極히 曖昧하야 肯定키難하나 이로써보건대 발칸協商國의合法的利益이 完全히考慮된다면 다뉴브協定의成立에 協力할用意가잇다는具體的協定에는 達하는것이 相當히困難하엿다고 보인다 但 墺太利의 합스부르크王朝의 復辟과 匈牙利의 再武備는 兩國이 먼저 第一에 平和條約 改訂의 要求를 抛棄하지 안는限 反對하기로 暗然한 合意가 되엇든것이오 또 萬若 루마니아에 再軍備를 許容한다면 土耳其의다다넬스海峽의 武裝을 許容하지 안흐면 안되겟다는데에도 意見이 一致하엿다고 解釋된다 그리고 루마니아外相 티투레스쿠氏와유고슬라비아 首相 에프티치氏는 近近 個別的으로 뭇솔리니伊首相을 訪問하고 다시會議에對하야 豫備的協議를 行할터이다

佛伊兩國空軍 協力條約調印完了

【羅馬十三日發聯合】뭇솔리니首相、도냥佛空相은 十三日午後베네치아州에서 空軍協力條約案에調印을了하엿다 新條約은 空軍相互援助 航空技術協力 商業航空提携의 三條項으로되어잇다고 倫敦宣言에 規定한空軍로카르노協約案의主旨는먼저 佛伊二國間에 實施實現한데 不過하다고하나 事實上空軍同盟條約에 不外하므로佛伊兩國空軍의 精銳를 總動員하야新興獨逸空軍에 對하야 西歐羅巴의 制空權確保를 期하는것이다 新條約의 內容은 如左하다

一、空軍相互援助條項 佛伊兩國 어느一方이 第三國으로부터 空襲을 受한境遇에는 他의條約國은 即時空軍을總動員하야 援助를與할것을公約함
一、航空技術協力條項
一、商業航空提携條項
一、空軍擴張條項

에對해서는 何等 發表되지안엇다

【羅馬十三日發聯合】뭇솔리니首相 도냥佛空相과의會見後航空協力條約調印에對하야 十三日 左의코뮤니케를 發表하엿다

뭇솔리니首相 도냥將軍 바레스트航空次官은 倫敦宣言言及 스트레자會議의 決定에 基하야空軍援助條約實現의 方法에 對하야協議하고 佛伊兩國空軍의事實的協力에關한 諸條件을決定하엿다 右決定에基하야今後 다음手段이講究될터이다 兩國代表는 商業航空에 關한 條約에 調印하엿다 右條約은主로 羅馬、巴里空路와 추니스及 트리포리間의 連絡航空路에當한다

駐日中國公使館의 大使館昇格決定

日本側과同時에發表

【電通上海十四日發】中國側消息에依하면 國民政府는 十四日行政院會議에서 駐日公使館의大使館昇格을 協議決定하고 同時에初代大使에 蔣作賓氏를 昇格시키기로 決定하엿는데 그發表는 日本側의 發表와同時에 이다 또中國側으로서는 大使交換에對하야 相互政府有力者를特使로서 派遣하는外 兩國의領事館增設、經濟提携確立及日中通商條約改訂交涉等을 開始할計畫을 갓고잇다 한다

日本駐中大使館은 當然의結果

英當局의見解

【倫敦十三日發聯合】日本政府가 英、米等에 率先하야 中國公使館의 大使昇格을 實施키로決定한것은 倫敦外交界에도 相當한 衝動을 與하고잇는데 英國極東關係當局은 이로써 極히 當然한結果라고 十三日左와如히 말하엿다

中國關係列國政府間에는 大使館昇格에當하야 압서關係國政府에 通達하기로하자는 決議가잇는것은 事實이나 그러나 如斯한 一國政府에서온 要請或은 의론이잇는境遇에는 各國이모다 承諾을 與한것으로問題업는바이다 況 日本政府今回의決定은 日本의 極東에잇서서의 獨自的地位에鑑하야極히當然하다

黃郛氏近近就任

【杭州十四日發聯合】去一月以來 莫干山에 靜養中이던 黃郛氏는 最近 健康도 恢復되엇스므로來十八日 下山杭州를출발하야 上海에 來往하야 數日滯在한後 南京에 向하야 正式으로 內政部長에就任할터이다

獨逸問責決議에基한 專門委員會 廿四日에招集決定

【電通壽府十三日發】聯盟理事會事務總長은 四月十七日에 理事會에서 可決한 獨逸問責決議에基하야 任命되엇다 將來 條約의違反國에對한 制裁具體案作成의 專門委員會를 來二十四日에 招集키로 決定하고 英、佛、伊外十三委員國에對하야 招請狀을發하엿다

伊太利總動員令

【羅馬十三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먼저 一九一三年及 一九一四年生의 兵士全部及 一九一一年生의 一部에對하야 動員을 決行하엿는데 十三日 다시 一九一一年生의 一部及 一九一二年生의 全部에 對하야 動員令을 下하엿다고한다

話題解說

人民投票

◇ 前者 「잘」이 人民投票로因하야 獨逸에復歸되엇고 또昨十四日 比島에서는 菲律賓獨立憲法의 可否를決定할 人民投票를執行한다고 報道되엇다。이機會에 人民投票란무엇인지 생각해보기로하자。

◇ 人民投票(Referendum)라는것은 代議制의缺陷을 補充하기爲하야 代表議會를經하지안코 國民의直接一般投票에依하야 憲法改正、法律制定其他의 政務를決하는制度이다。이것이 狹義의直接民主制와 다른點은 人民이直接參與하는것이나 人民全體가이것을通하야 統一的意思表示를하는 組織的機關 卽州民會等의機關이업는點이다。이制度는古代의希臘、게르만民族의 一般으로行하고잇던것인데 十九世紀에至하야 瑞西(一八七四)獨逸(一九一九)墺太利(一九二○)가採用하고 단지히、瑞典、希臘、에스토니아、愛蘭、丁抹等諸國도施行하엿다。그런데 廣義의人民投票에는 左의세가지가잇다。

◇ 一、人民拒否 議決、裁決을經하야 이미公布成立한法律을 人民投票에依하야 廢止又는實施延期하는것。

二、人民表決 이미議決을經하야 아직公布되지아니한 法律의可否를 人民投票에依하야 決定하는것。이것이 本來의 人民投票이다。그러나 法律에依하야 當然히行하는强制的의것과 어떤國家機關의任意의 要求에依하야 行하는 任意的의것이잇다。

三、人民發案 人民中의一定部分에게 立法 又는 國家政治上의行爲를 請求시키는것이다。이것은 그法律的效力이 有하고 直接效力을有한議會의 決議、又는人民表決을發動시키는 間接的效果를生하는데不過하다。

◇ 그런데 人民投票는 그對象으로하는 法律의差別에따라 憲法上의것과 法律上의것과에區分되는데 大統領의解職、重要官吏의任免、財政上의處分等에도行하므로 行政上의人民投票도 認定치안흘수업다。人民投票의 政治效果에關해서는 瑞西와가튼合議體民主制、米國과가튼 三權分立民主制、히틀러政府以前의 獨逸과가튼 議會民主制에 잇서서各各다른作用을한다。

◇ 要컨대「人民投票라는것은 組織된人民 又는 一部人民의 國家意思表示로서 立法 又는行政上의國家行爲가 이에依하야 招致되고 阻止되고 또는廢止되는 一切를말함이다」라고定義한 하제氏의定義가 妥當하다고할수잇다。

필元帥未亡人重態

【電通華沙十三日發】필수드스키元帥未亡人은 元帥逝去를悲觀한끄테 心臟麻痺症을이르켜 重態에陷하엿다

伊政府仲裁委員會 代表二名任命

【羅馬十三日發聯合】聯盟理事會의 開會를압두고 伊太利政府는 에디오피아國境紛爭의 和平解決을 圖하기로決定하고 十三日에 至하야 仲裁委員會에 參加할 伊太利政府代表 委員二名을 任命하는同時에 에디오피아에도 이를通告하엿다

필元首國葬終了까지 히總統宣言延期

【伯林十三日發聯合】히틀러總統은 十六日 國會를招集하고 獨逸政府의 外交方針을 宣明할豫定이던바 波蘭陸相 필수드스키元帥 急逝때문에 同元帥의 國葬終了까지 右宣言을 延期하기로된모양이다

人事·集會

▲崔志煥氏(忠南參與官)新任人事次十四日來社
▲大河原重信氏(忠南內務部長)同上

八面錄

◇ 昨年中 朝鮮人의 食糧消費는 每人앞에 米四斗一升一合七勺 雜穀一石一斗九升餘라고。

◇ 米는一斗이늘고 雜穀은 二升이 減햇스니 밥주머니(胃)도 줄어들엇다는말인가。

◇ 春播夏耕 秋收冬藏은 지난날의꿈이런가、이팝은 그만두고 조팝조차 배골흠은무슨까닭。

◇ 耕地가늘고 產米가늘고 米價가올으고、景氣가조코、눈에는 豐年이고、배에는凶年이고。

◇ 今年에는 四月末朝鮮米現在가 六百三十二萬石이라하니、좀더 먹어도 될듯한數字。

◇ 보고도못먹는것은 畵中之餅이오、두고도못먹는것은 朝鮮之米든가。

國際通貨安定策에 米政府不反對

◇米財務長官宣明

【華盛頓十三日發聯合】모겐도財務長官은 十三日 午後十時「米國弗」이란 題目으로 演說을 試하야 라디오를 通하야 全國民에게 米國政府의 通貨政策을 宣明하엿다 財務長官은 國際通貨安定에 對하야 米國政府만이 何等 反對의 理由가 업다는것을 言明하엿다 但米國政府로서는 「通貨秩序」恢復의 責任을負擔할 수는업다는것을 强調하고 現行銀政策堅持를 示唆하엿다 財務長官의 演說要旨는 如左하다

世界各國은 通貨安定을 探索할準備가되면 그때에는 米國政府로서는 決코 通貨安定의 障碍가 될것이아니라는것을全世界가알지안흐면안된다 그러나米國政府는 特別히 協定한 經濟事情을 克服할 道義的責任이 米國에잇다는 立場에노힐事實이 어대잇느냐

다음 財務長官은 弗貨의 平價切下前後의國際貿易의 實情을細目에亘하야 展說하야 通貨安定問題에言及하고 最後에銀政策에言及하야 米國政府는 貨幣用金力으로서의銀의 効用을 增大시키는데 努力하고잇다 라고 述하엿다

迫頭한府邑議員選擧 立候補겨우定員

面議員은아즉도殆半不足 選擧法違反十三件

府邑會員及 面協議會員의 選擧日은 一週日밧게남지 안엇는데 十日現在의 立候補數와 選擧違反事件에 對하야警務局에서 調査한바에依하면 府는定員四百三十二名에 立候補者는 四百九十五人 其運動者 五千百十三名 邑은定員 六百二十六名에 立候補者 六百九十三名 其運動者 二千九百六十四名이고 面은定員 二萬三千百二人에 立候補者一萬八千五百三十二名 其運動者 九千八百三十二名에 達하는바 面協議員의 立候補는 慶北平安南北、咸南은 이미定員을 超過하엿스나 京畿、黃海兩道는 아즉定員의三分之一에 不過한狀況이다 又選擧違反事件의狀況을보면 釜山에無屆出運動이二件 飮食饗應이二件 淸州에脅迫一件 紋營에 無屆出運動三件 公州에選擧妨害가一件 蔚山에饗應一件 無屆出運動一件 平壤에饗應一件 物品供與一件 合十三件으로 警察當局은 此等選擧違反事件에關하야 嚴罰主義를斷行하고잇다한다

國防、財政調和가 『內審』의 中心問題

【電通東京電話】內閣審議會의 中心議題가될것은 압서 同會副會長인 高橋藏相이 希望을 披瀝한바와가티 國防과 財政의調和에잇는것은 議者의 거의 認定하는바이오 軍部 特히 陸軍에서도 獨自의 見解를가지고 잇서서 自進하야 積極的으로 協議의 俎上에올려노흐려고하고잇다 그러나 高橋藏相及 政府가 所期하는「國防과財政의調和」라는것은 國防費를 可及的으로削減하야 이것을 他方面에 充當하고 이에依하야 所謂 健全財政을 確立하려는것임에 對하야 陸軍側의 主張하는바는 國防은 國策遂行의第一義이다 라는 觀點에서 必要한 國防費의 最小限度는 어떠케하더라도 이것을 補塡하지안흘수업다 따라서 必要한 最小限度의 國防費는 곳까지 이것을 要求하고 이支出을 爲하야 他方面에 조금도 影響을 미치지안토록 諸般의 財政機構를 調整하려는데잇스므로 高橋藏相及 現內閣이 希望하는 國防과 財政의 調整과 陸軍이 希望하는 그것과는 本質에잇서서 全然 背馳되는故로 審議會의 議題가되는境遇에는 이것으로 陸軍側과의 正面衝突은 免키어려우리라고 그推移를 注目하고잇다

民世筆談 (十)

民衆深化過程 (八)

우리民族性의病弊 (二)

安在鴻

×

無何先生足下

現代의 朝鮮人은 그中和性이 不足한點에서 相互의 不寬容과 相互의 殘踏으로 온갓의 分解와 殘滅이 結局의自己耗損에 熱中하게되어 마치協力하야 그生長發展을 스스로沮害함과 갓습니다 或海外에서 또域內에서 私爭的의殺伐이重鎭인人物을 殘害하고 睚眦의怨으로써 오히려相對者를 斬草除根하려는 社會的殘忍性을 보이고잇서 …… 朝鮮에서 指導的任務에 當하려는者 外他의災難이 이미 그압흘 노리고잇는데 社會的殘害가 또 그굼치를밟어쫏처오니 갓득이나 無氣力한狀態에빠진 人民이라 스스로 마를수업는 至願이잇는者外에야 뉘一줄기어 辛勤한 社會奉仕의 묵어운멍에를지고나서려할것입니까? 그러나 近世 四五百年 그馴致되든 由來의 風潮를 回顧하면 그것이 實로 怪異할바아닙니다。

×

世祖朝와 六臣殺戮과 그 門閥戮에 殘忍性도 어지간하거니와 燕山主以來 前相斬殺하는流의 士禍로부터 그中에는 今世까지도 그 是非의 判斷을 不一히하는 宣祖己丑獄으로 伊來 걸핏 거푸거푸의 事件은 是非 黑白이 顚倒되고 翻覆될뿐 아니라 냉혹을 당기어 입새를 쥐어뜻고 돌뿌리를 처들어 뿌리를 뒤지는 前祭羅織이 사뭇 百世의後 喪亡의 날을 準備하기爲하야 惡魔의 使節이 먼저 그 쓰라린 손을 들은것 가튼 奇觀조차 잇엇스니 그 血性이 天下民國의때문에 끌키를 먹은대신 沈滯僞惡의속에 한갓으로 그 消極的 殘忍에로 轉注한 자취를 찻슬것이오 地上의 生物인 人生들의 歷史的生態가 참으로 有心人의 注意를 끄으는바입니다。

×

이러한 心情的傾向이 더욱더 觀念的인 非現實性인 第三의傾向과 合流하야 一國의治者群으로 오즉 空理私爭이破裂倒壞의 形勢를 재촉하게되엇으니 史上에 들어난 數三件事로 보건대 崔永慶 鄭介淸等은 山林 放達의士이라 屠戮의禍를입고 李舜臣은 八域蒼生再造의 聖雄이라 數三人의 虛妄한 筆舌이 그를 拿囚鞫問의 厄에 집어너엇고 權慄은 陸上 常勝의元勳이라 致仕하는 一個의幕下士를 微治함에 坐하야 不時露論의몸이 되어잇고 崔鳴吉은 그見識 誠念이 丙子滿洲의役을 通하야 第一의 實際的政治家인 人物이엇거늘 그의 修好防禦의策이 沮害되어 舍하얏슬뿐 아니라 南漢困窮의 中에서 오즉「先斬其頭」의 聚訟의 과혁을 일우엇스며 商怡와 金德齡은 그 武勇이 出人하엿든 탓으로모다刑殺을當하엿고 丁若鏞 李家煥等은 憂國經世의 先覺者인것이禍因으로 모다거이 破巢碎卵의慘亂에빠저서고 洪鳳周 南鍾三等은 開國進取泰西의 文物을 輸入하야 民國 倒懸의 厄을 풀기를 謀思하려다가 溪宗絶祀 爲奴爲婢하는 慘禍에 넘어것스니 첫재는 現實을正觀치안는 觀念的인浮議에서 둘재는 中和性을일흔 不寬容의 猖激性에서 얼마큼이나 民과國에 荼毒함을 짐작할것입니다。

×

녯날壬辰의役에 義州를들어온明將某는 朝鮮의軍民이「衆生之心」이「骨軟體酥之致」라고 斷하엿스나 明將이홀로 明察함이아니어서 外來人의 觀照에 번저뜨우는 現實은이 虛飾繁苛한 弊風이엇슬것입니다 淵蓋蘇文은 殘暴慘悍한人物로서 健武大王을弑하고 그近侍하는臣僚를殲除하야 先儒無數한 誅를밧든이나 그러나 오히려自己에게不服하는 安市主를 放任하야 서唐世民三十萬軍을 擊破하고 唐 世民으로도 눈이 멀어 쫏겨가는大役을쭈미게 엿스니 그寬容中和의性이 반듯이當時盛世一般의 氣風이엇슬것이오 新羅의勿稽子는 再次의戰勳이 갑혀지지안흠때 妻子를다리고 山中에들어가 스스로줄기엇스니 이 調로써 도도한그個性의 빗남뿐이아니어서 敦厚의風이 一世에흐른것을 彷彿할수잇는 것입니다 무릇世態人情은 워낙素樸을깨드리어 刻薄이 甚하여지는바이지만 近世朝鮮 偏狹苛察의弊가 그民族的 衰運과雙行함을보면 實로 또 그寒心할 歷史的因果를 살필것입니다

(講義錄課目은 下記와 如함)

▲修身講義 ▲國語講義 ▲作文講義 ▲漢文講義 ▲習字講義 ▲國文法講義 ▲地理講義 ▲外國地理 ▲日本歷史 ▲滿洲國地理 ▲東洋歷史 ▲西洋歷史 ▲現代史講義 ▲動物講義 ▲植物講義 ▲鑛物講義 ▲生理衛生 ▲算術講義 ▲代數講義 ▲幾何講義 ▲三角講義 ▲物理講義 ▲化學講義 ▲英語講義 ▲英文法講義 ▲英作文講義 ▲公民講義 ▲世界思潮

模範速成 中學講義錄

絶大의 信用 白熱的 大歡迎 二圓七十錢의 學費로

(左의十二卷을 단번에 送付한다)

全十二卷 五千餘頁

破天荒의 廉價로 內容完全無比

最新式講義로 第一알기쉽다

文部省中學令에準據하야 全科目을網羅함

只今까지 一個年卒業에 十圓餘의 會費를要한 中學講義錄을 단지 二圓七十錢으로 全學短期間에 全卷을 全部送册하야、自由로 中學卒業의 學力을 얻는 中學會는 日本에 단지本會 하나잇을뿐。이犧牲的 大壯擧에 只今은 全國中學講義界의 人氣는 本會에 集中 申込殺到 後援激勵의 편지 禮狀이 續續到着되는 大盛況中 申込은 一日이라도 빨은것이 勝利 只今 곳 特賣期間中에 申込하시라。

三圓以下의 學費로 高普全科를 卒業하는 中學講義錄의 大亂賣

全學期十二卷 一秩定價 十二圓을 緊急!! 短期大特賣!! 五千組限해 단지 二圓七十錢에 提供

申込과 送金法

一、會費(講義錄十二卷代)二圓七十錢
一、送料 內地二十錢 海外五十五錢

右記會費에 送料를 添付前金으로 小爲替又는 振替口座(東京七七三九六番)에 拂込할것 (振替用紙는 어느 郵便局에도 비치하고잇다。郵便切手代用은 五分增送)

會費三回分納法

形便上 會費分納希望者에는 右와 如히 金一圓卅錢式(送料共) 每月一回式 三個月에 分納送金하시오

形便上 代引으로 申込할 時는 內地送料共、三圓卅錢 海外送料共、三圓五十錢 에 送付

注意 三回分納에 限해 代金引替는 謝絶함

◆送金到着次第 會員名簿에 登錄 左의 ◆講義錄全十二卷 ◆本會의會員證 ◆會員質問券 右記全部를同時에 嚴重包裝發送함

入會後의 特典 여러가지

入會證 講義錄 工夫中 不明한點은 學校의先生에 質問한것과가티 몇回라도 自由로 質問하는 대로 本會의 專門 諸講師가 責任을 가지고 親切丁寧히 解答하여드립니다。

講義錄修了後는 오래 本會의 會友로써 受驗、就職 其他萬般의 便宜와 優待를 합니다。

朝鮮日報愛讀者 記入申込할것이라

東京市京橋區銀座西二丁目二番地 昭和 模範速成 中學會 振替口座東京七七三九六番

最新 電氣醫學 電氣醫療師 學理、實地全科責任養成 生徒募集

認可 二週年記念大特典生

●短期卒業、僅少한資金으로도 곡成功한다

●醫師同樣의 尊敬과 收入을 엇고 一生安樂한 高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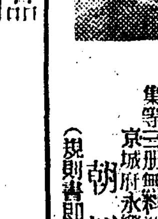
卒業生은 內地、朝鮮、各地自由開業의 資格잇슴 近近法令도 發布되려니 入學하려면 只今이 最好時期 本院長은 斯界第一人者요 東京電氣醫學校長인 電氣綜合醫術의 創始者이다

朝鮮에서 本院以外에는 養成所는 업다 資格잇는 希望者는 빨리 規則書를 請求하라

認可 京城電氣醫學講習院 附東京電氣醫學校 京城黃金町三ノ三四四

恩給 立替救濟의 最有利 金融方法有 京城授恩洞一○ 鄭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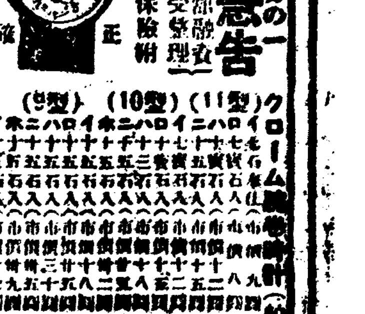
漢方藥品 新藥 新製劑 有名賣藥 醫療器具 卸小賣 杏林舍 釜山富平町四丁目(前住所京城駱龍洞) 電話 四八七 振替釜山四六五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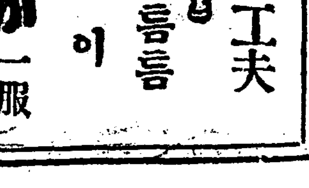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 合格保證 特典으로 鮮人巡査試驗問題集等三册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一番地 朝鮮警務學會 電本三○三○番 (規則書即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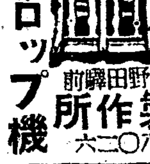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入院室完備) 京城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實踐簿記專修學院 第二部中學生徒募集 五月十五日 ... 校舍大擴張 ... 京城黃金町六丁目 (電本二一六○)

京城 金 地金銀 分析所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市價三分の一 乱賣急告 (某外國商館融資區分品引受整理) 十五ケ年保險附
是非一度御試用を!
クローム腕時計(革バンド付)
クローム懷中時計(クロームクサリ付)
クローム懷中ウオルサム
前金御註文ハ送料弊店デ負担致マス
代金引換御註文ハ送料注文主負擔ニシテ註文高ノ三割以上內金ヲ必要(但三円半以下ノ品ハ代引絶對ニ扱ヒマセン)
御送金ハ振替、小爲替、切手ノ際ハ一割增ノ事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東京市本所區龜澤町 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工夫 틈틈이 はればやか 一服


メルスター 延菓子機 金儲 アイスドロップ機 石樫製作所

深夜雨中에火災 無慘三名이燒死

二層서女工一名跳下라重傷 今曉明治町에惨事

십사일 오전세시오분경에 시내 명치정(明治町)이정목 팔십이번지 동순태(同順泰)별장안의 전전(前田)인쇄공장 일층후방에잇는 엔젤건조실(乾燥室)에서 발화하야 때마츰내리는 비가운데 도불구하고 불길이조희와기름에 인화되여 불꼿은 점점 이층으로 삼층으로 다올라서 이층에서 잠을자고잇던 공장주인전전 체장(前田勝藏)(四二)과 그의딸인 남대문소학교(南大門小學校)생도 방자(房子)(八)와 동공장 녀공 리완숙(李完淑)(一七)세명은 화염중에 활로를찻지못하고 무참히 타죽고말앗스며 김순이(金順伊)(一七)라는 녀공은 삼층으로 불을 피해갓다가 할수업시삼층창문에서 길우로 뛰여내리다 빈사의중상을 입엇다 건너편 선림(鮮林)이란 첫집의주인 목하(木下)란사람이 제일먼저명치정(明治町)파출소에 이를급보하엿다 이급보를 접한 경성소방서원(京城消防署)과 고천(古川)서장이하 소관본정서원(本町署)의 노력에의하야 불은린접한화신상회(和信)창고 삼층일부에 연소되채 동네시삼십분경에 겨우진화되엿다 손해는약오천원가량이며 출화원인에대하야서는 소관 본정서에서 목하엄중조사중으로 아즉 자세히알수업스나 십중팔구는 실화이라한다 삼층에서뛰여 내리다중상을입은 전긔 김순이는 즉시부근중도병원(中島病院)에 데려다가응급치료를한후 부민병원(府民病院)에 입원식혓는데 생명은겨우부지하엿다한다 (사진은불난현장과시체운반광경)

零碎한賃金에 一家의支柱 孝誠極한燒死處女

불에타죽은 리완숙(李完淑)은시내인의동(仁義洞)륙십오번지 리효광(李孝光)의장녀로 집에는륙십이가까운부모와 어린다섯명의 동생과가치 사글세집오막사리에서매달오륙원의 임금을그생게의 지주를삼고 그날그날을간신히유지해가던효성잇는 끼끗한처녀로써그날도 아츰밥을먹고전과가티 집을나간후 몃푼의돈을 더벌라고오후열한시까지 밤일을 계속한후 밤이느저서 주인집방한구석에서 피곤한잠을자다가 그와가치무참하게 타죽은것이라는데 인의동그의집에서는 늙은 부모와어린동생들을 싸고 부슬부슬내리는 비를마즈며 동내의사람들이 효성잇는그의넉을 위로하고 잇섯다

就職憑藉詐欺漢

【仁川】 취직하야 준다고 금품을사취한 사긔한 ‖시미만석정(萬石町)이십번지 김룡범(金龍範)(二二)은 花平里三〇八 徐英俊(二〇) 萬石町通遊場 金甲富(二〇) 花町一의二〇 鄭泰馥(二一) 등삼명이 무직으로 잇는것을긔회로 취직시켜준다고 피복과운동비로 사원내지 팔원식을사취한사실을 비롯하야 그외에도십여건의 전긔와가튼 사긔를 범행한후 지난 이십오일에는 해안정(海岸町) 복도조(福島組)의 자전거를 절취한후 경성으로도주하다가 주안역(朱安驛)근방의 모음식점의 고용녀가전매(轉賣)되여 오는것을 자긔가 그집을갓다주마고 자전거에실은후 녀자는 긔차로인천으로 가게한후 전긔물품은 시내모전당포에 입질하는도중에 소관서원에게체포되엿다는데 그외에도 여죄가 만아 방금엄중취조중이라한다

渭原對岸에서 巡査가被殺

【平壤】 십일일오전아홉시삼십분 평북위원군 서래면리산동(平北渭原郡西泰面梨山洞) 경찰관 주재소파구(板口) 박(朴) 노(盧)등 삼명순사는 대안중안현제이구주목옥(輯安縣第二區木屋)유목림자강구(楡木林子江口) 부근에 월강하여 대안의토병보를수집하고잇는중 돌현히 계통이분명치안은 척후가튼토병륙명과 기돌하여 교전하다가 판구순사는 부상하여스므로 박,로의두순사는 위급으로 리산동출장소에 통항하자출장소장등전(藤田)순사부장은위원본서에응원을청하는일방세명을인솔하고 월강하여 토병공격을개시햇스나 배후에는약백오십명의 토병단이잇는모양이므로 그세력은 점차로증가하는 경향이어서 곽산을불허하는현상이다 위원수비대이하○○명은 급보를접하고 출발하고위원서에서는 대촌(大村)경부보이하 이십일명이 고려봉(高麗峰)상척에 나누어라고 월강토벌을개시햇다

當番船夫共謀코 船荷窃取逃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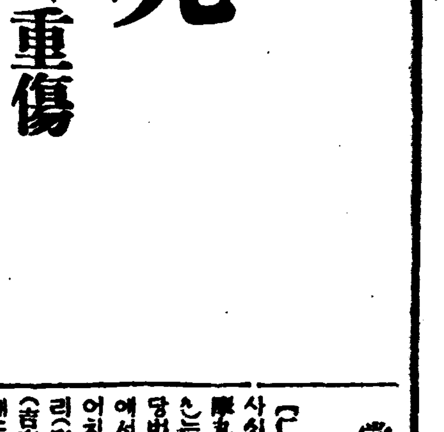
【仁川】 시내화평리(花平里)이백사십이번지 인천긔선룡마환(龍馬丸)의선부 곽영주(郭永柱)(二二)는 선원수명과공모한후 자긔당번인 지난구일 룡긔선의창고에서 『메니라』『카바』수백원어치를절취하야 부천서곳면고잔리(富川郡西串面高棧里) 김래환(金來丸)김상룡(金上龍)(二一)에게 매도한것이발각되야 지난십일일 소관서원에게체포되엿스나 공범수명이 체포되지아니하야 동피해액등은 자세치아니하나 방금 엄중조사중이라한다

今夜

午後八時 於 公會堂

桂貞植博士提琴獨奏會

伴奏 말쓰베리氏



阿野機壯途에

【龍通제스록런던郊外十二日發】 일본인최초의인도(印度)경유 남방코쓰로의한 구아(歐亞)련락비행을계획한 아야승태랑(阿野勝太郎) 비행사는 십이일오전 딸시 이십이분(일본시간십이일 오후 다섯시이십이분)『크로임』리 『이궁』형단엽기 청매호(靑梅號)로를 조종하고 『런던』교외『쟈스톤』 비행장을 출발하야 장도에 올랏다 예정항로는 『벨그라드』『바다드드』가『라치』『아라하바드』『랑궁』향항(香港)상해(上海)대도세(太刀洗)대판(大阪)동경(東京)으로약 두주간을 요할모양이다

吳辯護士關係 檢擧는漸擴大

【平壤】 시가삼백만원으로 평가되는 함남영흥(咸南永興)에소재한 요덕금산(耀德金山)사건으로 광주(鑛主)서운석(徐雲錫)씨의소송에관련한 오숭은(吳崇殷)변호사가 수금명이후 사건을 담임한 암성(岩城)차석검사는 오숭은변호사를 위시하여 압서수감된오숭은변호사의장남오현호(吳鉉浩)와대정수초한모양이며 오현호가 물고가서 단도(短刀)와 폭탄으로위협하고 금산을정에때에부하로가튼정모(鄭某)외네명은 어미전거를보아 사건은더욱확대되는모양이며 십일일아츰 평양서 임(任)형사부장외멸명은 서준석씨를 동반하여가지고 요덕금산에 급행햇는데 이것은 전자 오현호가 인솔해가지고 갓든 폭력단원의 일부가 아직까지 금산에웅거하고 잇슴으로산당전부를 검거하려는것인바 폭력단원전부의 검거로 사건은의외로 확대될지도 상상키어려운바잇다 하여튼 사건이강도、광산령위반、사긔횡령、문서위조등착잡한 내용을 가지엇슴뿐이아라 광주서준석씨가 도회의원이오 현잡사건의 중심인물오숭은씨가 역시 도회의원이오 사요 전평양변호사회장이오변호사로 사회적지위가 놉흔만큼 사건의금후진전은극도로 주목되는터이라한다

西北地方旱魃 夜來雨도尙未霑

今後一週內로洽足한降雨가업스면 農形엔致命的影響

경성이남의 중남조선지방은 적당한강우가 잇섯슴으로 모판에든지모심기든지 별지장이 업시 대체순조로되는 모양이나 서북조선지방에는 근년에드문 한발이계속하야 밧농사는 물론논은 전부심기가 되지못하는 상태로 특히서조선지방의 한발에잇서서는 관게방면에서 매우 우려하고잇는중인바 최근에 어지방을 실지시찰한 전문가의말을 드르면 서조선 일대의 한발은 상상이상으로서 일월이래로 전부 딸미리의 강우에지나지못하야 밧농사와가튼것은 전부고사(枯死)상태로 일작일의강우로 해변지방은 십미리내지삼십미리 벼지는이십미리정도로서 조곰(숨을내쉰것가햇스나 이지방은 농사는직파(直播)가대부분으로 이정도비로서는 아즉도태부족 한편으로 이달이십일까지상당한강우가업스면 모심기는전연 불가능한상태로 대문제이다. 대정수리(大正水利)、평안리수(平安水利)가튼수리조합도 저수지의물은 당장에비가오지안는다고하면 륙월한달로써 모다말라버릴상태로이십일까지 가안온다면 상당한대책이 필요하다고한다 그리고 십사일 새벽부터 도 경성지방과원산(元山)지방에 왓슬뿐이요 서조선지방은 호리고잇슬뿐으로 비는올가망이 그리보이지안는다고한다

孔子聖像盜難

【咸平】 전남함평군대동면향교리(全南咸平郡大同面鄕校里)공자사당(孔子祀堂)에 안치한공자성상(孔子聖像)을십여일전에 도난을당하엿는데 당지경찰당국은그범인을엄탐중이나아즉도단서를어지 못한모양인데 이러한범행이각지에서발생됨을보아그범인은 골동품(骨董品)행상의소위인듯하다고한다

十二名은起訴 十五名은不起訴釋放

起訴者中에八名은豫審에 中央高普學生事件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치안유지법 위반및폭력행위취체규측위반 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구속취조중이든 중앙고등보통학교생도이십칠명은 십일일저녁에 그취조가 끗남에따라 여덜명은치안유지법 위반및폭력행위취체규측위반등 죄로 기소되여 예심으로 회부되고 네명은 폭력행위취체규측위반 공무집행방해상해등죄로 기소되어 공판으로넘어갓다 그리고열다섯명은불기소되어 당일밤에 서대문형무소에서출감되엿다 기소된사람들과 석방된 사람들의 성명은다음과갓다

▲豫審廻附者

▲治安維持法違反‖韓東正 金世煥 張銓進 宋在讚

▲治安維持法違反及暴力行爲取締規則違反‖李鍾悅 柳珩 劉仁洙 李浚圭

▲公判廻附者

▲暴力行爲取締規則違反及公務執行妨害‖元容德 林斗鐸 黃榮九

▲暴力行爲取締規則違反及公務執行妨害、傷害‖黃源泰

▲釋放者‖柳石福 金龍甲 韓俊澤 金鏞弼 李賢成 嚴行鉉 申斗熙 洪承晩 李興基 張厚遠 金炳瓚 姜大亨 鄭承南 曹映銖 徐圭衡

一萬九千圓으로 砂防工事區擴張

【榮州】 경북영주지방(榮州地方)에는 대정십이년부터 사방공사가 시작되엿스나 예산관게로전군십일면내의 삼개소만 실시하여오든바 금년도부터는 문수면(文殊面)을제외한십일면에총공비신일만구천오백구십오원으로 총면적삼백오십칠정보에 공사를 확장한다는바 면별로보면 다음과갓다

伊山面新岩里 平恩面江東里 舟山面東元里 榮州面助臥里 長壽面豆田里 安定面大㘨洞 順興面蒼邸里 浮石面韶川里 豐基面山法洞 鳳峴面柳田洞

天氣豫報 曇一時晴

朝鮮의南方에잇는 弱한低氣壓은 關東方面에잇서 東進中이오 高氣壓은 千島方面과中國北部에펴저잇다 全朝鮮一般으로 흐리고곳곳이 小雨가잇다 氣溫은 木浦、全州十五度와 雄基의六度의사이에 잇다 明日도흐린日氣리라

昨日氣溫	最高	二十一度二
	最低	八度四
今朝	最低	一一度八
今日	正午	一三度七

新潟縣下大火 二百餘戶全燒

【加茂電話聯合】 십이일오후세시 경신석현남포원군가무정(新潟縣南蒲原郡加茂町)복부효태랑(服部六太郎)방으로부터 불이일어나 때마츰불든풍에불리워 불은것잡을새업시 딸방으로퍼저 신석시를 비롯하야그부근정촌으로부터 달려온소방조의필사적 노력에도 불고하고 드듸여 이백여호를 전소하고동오시반에진화하엿다 원인과손해는 방금조사중인데 피해가 막대할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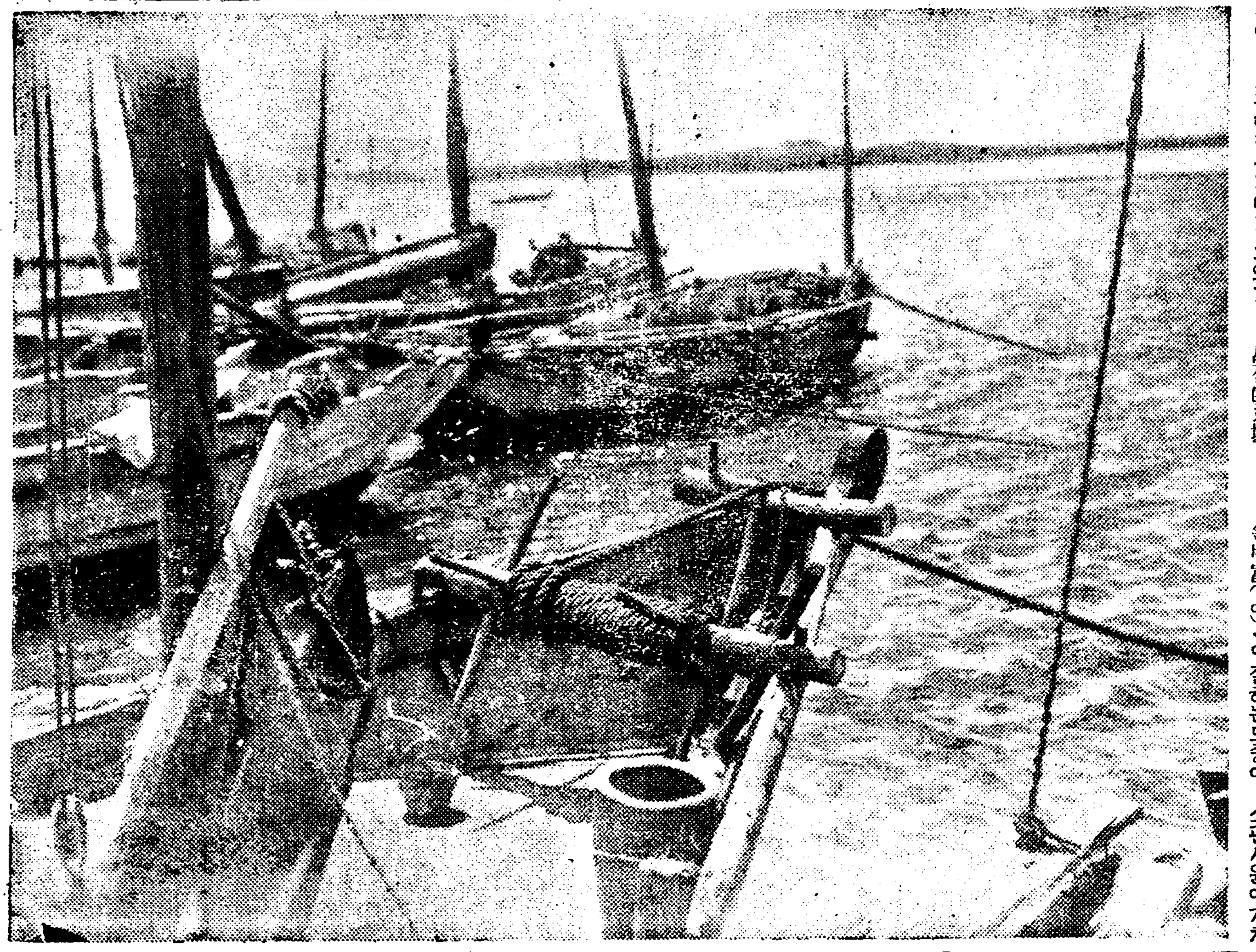
유 모

구하오니 희망하시는분은 지급히오십시요 京城府鐘路五丁目九八 電光六七九番

金釵百個、指環二百個 窃取逃走中被捉

店員이發見、警官과合力하야格鬪逮捕 休日"和信"에大窃盜

십삼일 오후열시경에 시내종로이정목백화점화신(和信)에는마치날이 휴일이엿스므로 아츰부터 문을다든것을 기회로여기고 어떤괴한이침입하야 귀금속부에서 금비녀백여개와 금반지 보석반지등 반지만이백여개 까뭇칠천원어치를 훔처가지고도망하는것을 마침점내를 순행하든 숙직점원이 발견하고 소관종로서에 급보하는 한편으로괴한을붓잡으려고 달려드럿다 괴한은완강히반항하야 한참격투하는중에 급보를듯고 달려온 종로서원이가세하야 겨우 체포하엿다고한다 취조한결과 그는 시내삼판통(三坂通)일백이번지 문성률(文成律)(二〇)이라는 절도범으로 판명되엿다 방금계속하야 여죄를취조중이다



浦‖漢‖의‖陰‖雨‖! (오늘마포서)

運動競技欄

三年만에처음열릴 延專對普專籠球

中等은養正?中東? 籠球리그最終日興味

半島籠球界의 精銳를網羅하야지난八日부터 열리어 連日滿都의『판』을熱狂시키고잇는 朝鮮籠球協會主催와本社運動部後援의第五回中等校 俱樂部籠球聯盟戰은 이옥고 明十五日로서 大團圓의幕을맛게되엿다 昨十三日까지의 戰績을도라보건대 幾多의 波瀾重疊한接戰의끄테겨우 各級의優勝候補『팀』이選出되여 오직最後의 決勝戰으로向하야 優勝은眼前에 닥처오고잇다 中等校B級에는 靑學이 三戰三勝의 全勝率로 斷然頭角을나타내이고잇고 中等校A級에잇서서는 昨年의 優勝팀中東과 制覇慾에 불타는 養正이 最後決戰을 行하기로되여 此一戰이야말로 中等籠球界의 超弩級일것을 疑心치안는다 俱樂部에는昨年의 覇者高麗가 普專과延專에게 無慘히 全敗를당하니延專對 普專爭覇戰의 興味는絶頂에 達하야잇다 腰忍自重悠悠히實力의 養成에 邁進하고잇든이두팀이 三年만에야비로소 서로戰場에서 對峙하게되여 일족부러伯仲하든 그陣容은全然豫斷을不許하야 滿都팬의 視線은實로明十五日 午後四時부터 松峴洞京寶코―트에서 열리는掉尾의一戰에로集中되고잇다

五回籠球聯盟戰率 …第五日現在…

◇中等校B級◇

(順位)		(試)	(勝)	(敗)	(率)
1	青學	3	3	0	1,000
2	一高	3	2	1	0,667
3	中央	3	1	2	0,333
3	培材	3	1	2	0,333
4	京寶	4	1	3	0,250

◇中等校A級◇

(順位)		(試)	(勝)	(敗)	(率)
1	養正	3	3	0	1,000
1	中東	3	3	0	1,000
2	徽文	3	1	2	0,333
3	儆新	3	0	3	0,000
3	大東	2	0	2	0,000

◇俱樂部◇

(順位)		(試)	(勝)	(敗)	(率)
1	延專	1	1	0	1,000
1	普專	1	1	0	1,000
2	高麗	1	0	1	0,000

日本遠征中의 米國籠球快勝 對東京帝大

日本遠征中의 米國올·스타―軍對東京帝大 籠球戰은 十一日午後七時부터黑澤、大村兩氏審判아래開始된바 東大劈頭에 저윽히리―드하야 一時接戰을 演하더니 米軍漸次로 好調를보이며 東大의追及을 許치안코 結局三十三對二十五로 米軍第一戰에 快勝엿다

米國33 (1320 / 1312) 25東大

아마拳鬪聯盟理事會

十五日午後四時百合園

全朝鮮아마추어拳鬪聯盟에서는明五十日午後四時부터 鍾路二丁目百合園에서 同聯盟理事會를開催할터이라는데 當日의討議事項은다음과갓다

一、第二回全朝鮮아마추어拳鬪選手權大會開催의件

一、朝鮮對比律賓對抗拳鬪戰開催의件

一、其他事項

中等庭球大會

十九日龍山코―트에서

降雨로因하야 延期中인 京城實業軟式庭球聯盟主催의 全朝鮮中等學校庭球選手權大會는 來十九日午前九時부터 龍山鐵道局코―트에서 行하기로되엿다

라이트級選手權

칸조네리·獲得

【聯合뉴욕十日發】『로니―·칸조네리―』選手는 十日에『루―·암바―스』와 라이트級拳鬪選手權爭奪十五回戰을行하야 判定으로 이겨서 世界라이트級選手權을獲得하엿다

敎化團體를統一

宗敎團體、農振、青少年團等 橫斷的聯合體組織

총독부에서는 민심작흥(民心作興)이라하야 종교의부흥등세를 단행하며 각종교화단체라할가도 는당국에서 직접리용할수잇는모든사회단체의동세를 단행하고전개회중이든바 그간각도런합회의 결성을보앗슴으로 조선교화단체련합회라는 최고지도긔관을조직하야 사상선도기타일반교화사업에착수하게되엇다는데 련합회에 참가되는단체는 농촌진흥회각종종교단체 부인회 청년단 소년단 소방조 기타이와비슷한 모든 단체를 총련합식히어 대대적으로 교화사업에 착수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평시에 잇서서는 사상선도와 교화사업에 종사할것이나 일단유사시에는 어떠한동원이라도할수잇는 주목되는단체의횡단적련결이라할것이다

炭坑에浸水로 四百名이溺死

二百名坑夫도生死가不明 青島淄川炭坑에서

【靑島十四日發聯合】 십삼일 오전열한시이십오분에 일중합판(日中合辦)으로 경영하는 치천탄항(淄川炭坑)제이 견항(堅坑)의 락반(落盤)한곳에서 맹렬한침수가 잇서 항내에서취업하든항부사백명과 일본인기사한명과 중국인기사한명이 묻엇다 『중우』로 급히구조에 노력하얏스나 침수로사용되지못하고 사백명이익사하얏고 그와동시에 제일견항(第一堅坑)도 물이들어서그곳에입항중의 이백명도 안부가념려된다 항내에는까스가 충만하얏스나 일본인기사 십명이 급행하얏다

時下槐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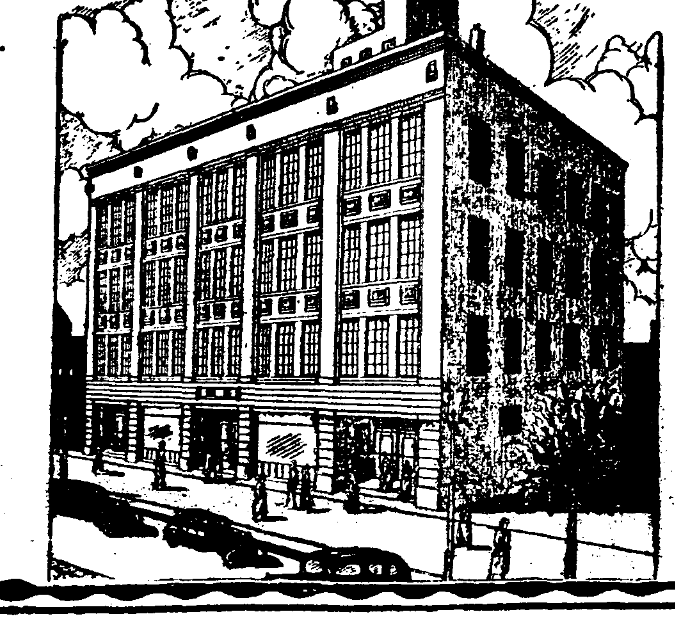
諸位尊體清穆하심을仰祝하나이다 就告 京城通路中心地에 一大偉觀을呈코저하와 客年秋에 起工되온『韓青삘딩』은그간近一年의時日을消費하야 近日落成의깃븜을보게되옵은 社會諸位의크신庇護와聲援의惠澤이온줄 생각하와感謝不已이옵나이다 今般不肖等이不足한才能과淺薄한經驗임을不拘하옵고 該삘딩經營에着手하온以來 計畫과方針이 內定되엿사옵으로 이제그經營事務를 着着進行하게사옵기 玆에 諸位께仰告하오니 압흐로더욱만흐신愛護와鞭撻로써 끈임업는指導를주시옵기를바라나이다。

昭和十年五月 日

韓學洙

李 哲

近日落成될 韓青삘딩!



貸室種目

店舖用
事務室用
其他

諸裝置完備

乘降 煖房 照明 電話 水道 瓦斯

申込所

『追加申込接受』

京城南大門通一丁目一〇四

韓青社臨時事務所

電話(光)二三二四番

交換台

길지나가는녀자들 히롱하는남부학생

대동상업학교(大東商業學校)당국에 한번 물어보것습니다 아시는바와가티 대동상업학교는계동(桂洞)과 원동(苑洞)두동네를 나려다 보고잇는 산등에 교사가잇지안습니가? 그런데 휴식시간이면 계동편을 내려다보고통행하는 녀자에게「검정치마!」하고 소리를치거나 질울악에서 일하는 녀자에게「힌저고리、입분녀자!」하고 큰소리를치니 이것이 학생신분으로 될일입니가

더구나 심한학생은 창을 내다보고 유행가를 합창하는이도 잇고 또 동창을 하기도하야 동네가 요란해질수가 업스니 어떠케 이것을 방지할 도리가업겟습니가? 이것은 우리 동리를 위해서도 또는 학생자체나 학교당국을 위해서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오니 되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桂洞 공겸生)

주상하는말가 넘까 엇재든선처하겟소

우리학교 생도가 그러타는것은 처음듯는일 입니다 흥상 학교에 대한 주의를 식히는데 그러한 행동이 우리 생도에게 잇다는것은 대단미안한일 입니다 창에서 나려다 보며 그랫다 하니 그것은 더욱 의외입니다 혹 운동중에 그랫다면 겨우몰 목으로는 크른 우리학교생도 만이짝그런행동을 햇슬리라고는 하기어렵지만 창에서 내다보면서까지 그랫다는것은 도시알수업습니다 어떠튼 그런투서가 드러왓다면 그것이 사실일것이니 잘조사해서 선처하도록 하겟습니다 그러나 우리학교생도가 그랫다는것은 아모래도 미더지지 안습니다 혹 이것이 누가 의식적으로 중상하려는 행동이나 아닐가요(大東商業學校教務主任談)

家庭

푸다꺼리못구리 웨들 하십니까?
이런미신은얼른버서버립시다
부인네들의큰수치

지난십이일 본보 석간사회면의보도에 의하면 자칭 남방녀왕(南方女王)이라고하며 떠들며다니는녀자가 경남진영(進永)이라는 지방으로다니면서 전도를하고 엉터리수작으로서 혹세무민하여서 일반의피해가 적지안다고합니다。

이러한것은 『중에도 가장심한것으로서보도된』 이지마는 지금에 우리들의 일반가정에 이러한종류의 미신이 얼마나 만히류행하고잇는가를 살펴본다면 실로놀나울만한 현상인것입니다。

대체로 미신이라는것은 사람의지혜가발달되지안어서 사회적으로 문화 정도가나진사회일사록만이잇는것이니 이러한 미신은 그사회의문화가 진보되면 되는대로 차차업서지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옛날에잇서서 금과옥조와가티 미더오는 미신도 오늘날에와서 한낫의 우슴거리에도 지나지못하는 이야기에 마라도잇지안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의문화정도가 놉하지는데따라서 이러한미신이업서진다고해서 그때가되기만기다리고 오리려 가정으로나 **사회로**나 미신이 성행하는것을 그대로보고지나는것은 매우그릇된일인가 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미신은 엇더한것이든지 될수잇는대로 업새버리는것이 곳 그사회의 문명의발전에 한개의 공적을드리는것이니 가령 고사를올니지안는것만도 결코적은일이안인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네가정을 도라보면 거의 년중행사로서미신적의식이 거행되는것은말할것도업시 집안에 병자가 생기면 의사의게진단을바더서 약을쓰기는새로이 무당판수의게 못구리나 푸념부터하다가 **앗가운** 생명을무참히일허버리는수도적지안치마는 죽은뒤에는 진너귀니 무엇이니하면서 또 미신에팔니는것입니다。그러고보니 경제적으로도 여간한물경제가아닙니다。이것이 얼마나 통탄할일입니까?

옛날에도 지각잇는집가정에서는 이러한 미신은될수잇는대로 밋지안어서 가령 가정부인이남편모르게 점을하느니 못구리를하느니해서 살을펴준다 도움낸다는것은 아주 주부의악덕의하나로 생각해왓습니다。그러나 **오늘날**과가티 일반의과학적지식이 발달된때에 잇서서 가정부인들의 아직도 미신을타파하지 못하엿다는것은 오늘날 일반가정부인의 크나큰수치이라고, 아니할수업습니다。

우리네의 지식으로서 가장미들만한것은 과학인데 과학이란 일뎡한원인이잇서서일뎡한결과가 낫타나는것을 증명하는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발달된 과학으로서도 사람의 머리에 잇는 길흉화복을 판단할수는업는것인데 하물며 아모런 **학문적** 근거도업시 사람의 미래를판단한다는것은 아모리 생각해도 우수운일밧게는아니됩니다。그러니 이러한미신을밋는것은 결국자긔의무식한것을 남의게 자랑하는것일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조금도 도움이업는것입니다。비록미세한일이라도 미신이라는것은 한가지식이라도 타파해나가지안흐면 안되겟습니다

머리에비듬
생리적관계와불결한탓
자조씻는것이제일이다

첫여름에는 비듬이 만히 생김니다 이것은 생리적관계와잘씻지안는관계가 만습니다 이제 그생리적이라는것은 분비물(分泌物)이 만흔분이 이비듬이 만흔데 그중에는 체질과 음식관계로 표면으로 비듬이 나오지안코 머리만 지독히 가려웁고털이 빠지는일이 만습니다 이런분은 한번 피부과의사에게 가서 근본적으로 상의해야하지만 이즈음 외출을 만히 하시어 몬지 때문에 머리가 불결해서 비듬이 생기는 데는 이러케 하면 그것을 업샐수가 잇습니다

먼저 밧게나갓다 오시면 머리에 솔질을하고 더운물수건으로 머리를 축인뒤에『도쪼ㅡ』이란 향긔조흔 모발영향제를 지단에 축여가지고 머리속을적심니다 그리고는 다시한번 더운물수건으로 머리털을싯고 솔질을하십시오

×

항상이러케하면 비듬도 안생기지만은 가려운증도 생기지안습니다 빗으로 부즐업시가리운머리를 글그면 피부를 자극식혀 비듬이 더생깁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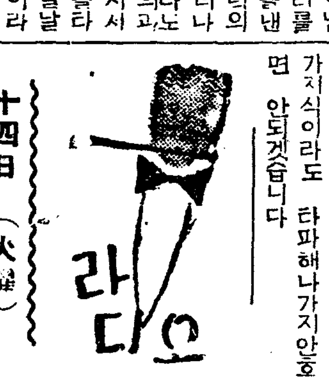
그다음으로 머리털을 씻는것인데 이즈음은 먼지가만흐므로 자조씻서야합니다 적어도 녀자는 열흘에 한번은 머리를감어야합니다 머리를 씻슬때는 너무 야단스러 머리털을 가지고 이리저리휘젓지마시고 고요히 씻서 나리십시오

너무더운물에 씻스면 자극이되여 조치못하므로 미지근한물에 세발약(洗髮藥)을 풀신뒤에 이삼분간 머리를 담것다가 씨스면 깨끗해집니다

×

여하간 머리를자조씻고 또주의해 머리화장을 하십시오 이것은 머리를 아름답게 맨드는것도 될뿐더러 머리를 상쾌하게 만드는것이므로 주의할필요가잇습니다

라듸오



十四日(火曜)

◇同六時 童話 일허진地圖 秦金巢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世界的航空家(一) 金容瓚
◇同七時三〇分 講話 西洋文化에關하야(二) 延禧文科科長 白樂濬
◇同八時 라듸오 드라마 姜太公 放送劇新人會
◇同八時五分 唱劇調 一、短歌 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 沈淸歌中 ■■■ 鼓手…丁元燮
◇同〃時一〇分 新民謠 一、■■■序 二、關山戎馬 申■均
自…九時五分(東京) 至…十時十五分(巴里) 佛蘭西■■ 國際放送 (第一放送에依함)

十五日(水曜)

◇午後〇時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玉樓紗窓 二、唱劇調 박타령 小春 鼓手 韓成俊
◇同二時 家庭講座 住宅과庭園(一) 朴吉龍
◇同六時 하-모니카合奏 아르메·하-모리카·밴드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世界的航空家(三) 金容瓚
◇同七時三〇分 家庭經濟座談會 林孝貞 朴承浩 宋今璇 黃信德 外放送部員
◇八時一五分 山念佛外 一、山念佛 二、孔明歌 三、京발님 四、방아타령 五、梁山道 鄭■紅
◇同時四五分 (東)봐이올린獨奏 에프렘·진바리스트 伴奏 토데자이덴베르그
◇同九時一五分 京城山打鈴 一、놀양 二、압산打鈴 三、뒤산打鈴 蘇■俊 韓■學 柳開東

十六日(木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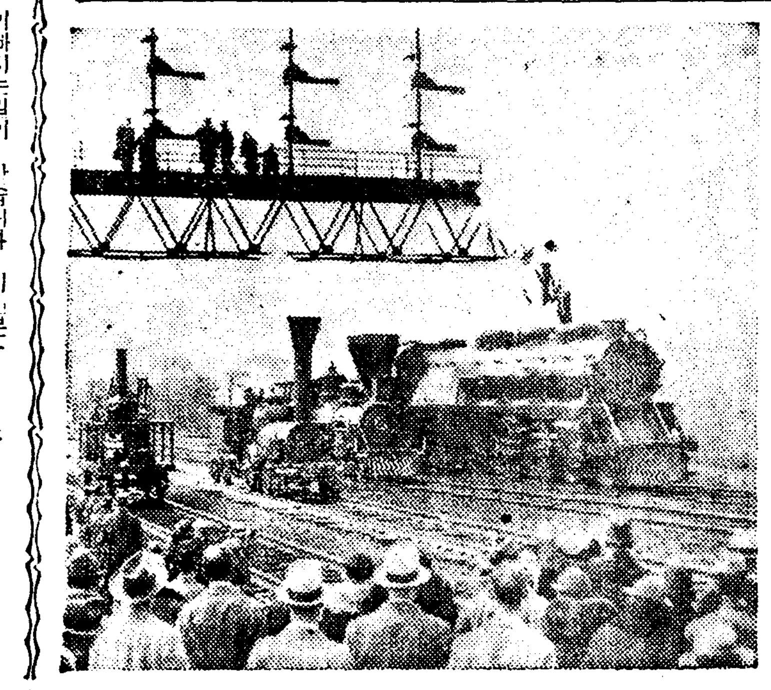
◇午前〇時五分 새타령外 一、새타령 二、六字백이 三、興타령 四개고리打鈴 金南洙 大笒 朴鍾基
◇同二時 家庭講座 住宅과庭園 朴吉龍
◇同四時二〇分(東)夏場所大相撲實況 (十七日)에國國技館으로부터中繼
◇同六時三〇分 童謠獨唱 一、봄밤(宋)二、하미새(全)三、무지개(宋)四、해변의少女(宋)五、농촌의봄(全)六、고초(宋)七、아침바다(全)八、봄나드리(全)九、령란꼿(宋) 金晩姬 宋甫先 伴奏 趙明軒
◇同六時五五分 課外講座 酸素

◇同七時… ■■■외化合物(一) ■■■ 崔在■
◇同八時 ■務■■訓示(一) (全鮮農山漁村振興關係官會) 田中■太郎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男唱羽調初數大葉 二、女唱羽調■■ 三、男唱言樂 四、女唱羽■ 五、男唱編樂 六、女唱編樂 七、男女唱太平歌 李炳俊 安鶴仙 玄琴 金雨■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字
◇同九時五分 連續古談 女俠(一) 庚秋■
◇同九時三五分 獨唱 一、放浪者…슈-버-트作曲 二、夜曲…멘자作曲 三、봄노래…멘델스존作曲 四、아베마리아…슈-버-트作曲 五、두나쇼팡作曲 六、또하나…로퇴作曲 安■承 伴奏 金元福

曆

五月十五日(水) 舊四月陰辛巳(小)十三日
辛卯·木·壁·開
●祭祀·嫁娶·移徙·裁衣·動土·上樑·卯時·開市·納財에宜함
▲立夏 六日(舊四月初四日)
▲小滿 二十二日(舊四月二十日)

긔관차의옛날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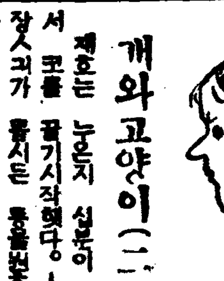


『발리모어·오하이오』철도에서는 지난사월십이일에 소위『톰·삼』긔관차라고 하든때의 가장 원시적인 긔관차로부터 一九三五년의 최신형(最新型)『로ㅡ드·발리모어』호(號)를 진열해서 긔관차의 진보발달이 엇더케되엿는가를 일반의게공개해서 매우 호평을 바덧다고합니다。

사진은 좌로부터 一八二九년『뉴ㅡ욕』의 『피ㅡ터·쿠ㅡ퍼ㅡ』씨에의해서 제작되여 십팔명의 려객을싯고『발리모어·에리옷트』간(십삼마일)을 주파하고 세인을놀나게한 시대의 사건。다음들은『윌리암·가로웨이』라고 하는 一八三七년경의 긔관차로서 점점현대적형태를 가추어온때의것이며、그다음이 현재의 최우수긔관차『로ㅡ드·발티모어』호 입니다。

유ㅡ모어小說 望夫石 【十】

金熊超 作、畫



개와고양이(二)

서 재호는 누운지 십분이 못가서 코를 골기시작햇다。ㅡㅡ시장ㅅ긔가 홀시든 동물원호랭이가 밤ㅅ바당을 할트면서 으르렁거리는소리、공원의 너른잔듸밭을 기계(제초機)로밀듯이『멀멀……』하는소리、원체 코꼴기로 유명한 재호지만 오늘밤은 더유난스런 소리를낸다。그뿐아니라 간간히 숨을 한참식 딱 끈엇다가 합꺼번에 모라쉴때에는 명례를 정거시키고 푸려주는 압착공긔처럼『쌰ㅡ』하엿다。

──야단도 스럽다!

명례는 남편의 몽툭한코ㅅ속에서 새여나는 가지각색의 의옥(擬音)을 드르면서 그의 자는얼골을끄럼히드려다보앗다。매일가티 보는얼골에 새삼스럽게 정들곳도업지만 마음노코뜨더보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일것이다。

말총마큼이나 것센머리털、약간붐그러지고도 툭터진이마、추사체의건너그은 회처럼 굵직한 두눈섭, 콧날이웃둑소슨것이 제법 사내다운데가 잇섯다。입은 잘잘때 버리고자서 걱정이지별로 탈잡을데가업고, 훗분이 조흘랴는지 더도 튼튼하게생겻다 대체로 이목구비는 버젓하자만 이십안짝에 여드름이 만히 내솟는탓인지 살ㅅ결이 거치러서 마치 보통학교생도가 크레온으로 그린『형님의얼굴』가탯다。ㅡ미남자라고는 할수업지만 어데다 내노튼지 사내답게는 생것다! 반주그레하고 히멀거케생긴 남자보다 씩씩해보히고……그만하면 됏지!

명례는남편의얼골에대하야 만족한드시 이리도보고 저리도보고하엿다。저고리하나를해노코옷깃이 잘달렷나 잘못달렷나 살피드시……。

──모양을 너무내다가 나종에는 온얼골을 저며노치안을까 살적근처에 면도로 포를 뜬자리가보엿다。명례는 이빠진그릇을생각하고 얼른 그자리가아무러 딱쟁이가떠러젓스면 하엿다。

모루 누엇는남편이 번드시고저누엇다。야단스럽는 코소리도 잠시끈첫다。다시난다。명례의생각도 자리를 고첫다。

──엇재서 혼인신고를 안해줄까!

자기도 모르게 진정되엿든가슴이다시 끌키시작한다。

──나한테서 단맛쓴맛을 다노왓스니까 마음을 딴데로 옴기는게지! 밤을새여 다니는것은 반드시 술때문이 아닐께다。아니할말로 도적질을하러다닌다면 하는행동이다르고 집안에 디려오는것이잇슬것이고 노름을하나? 노름을한다면 따을째따오더래도 집의것내가는일이만흘텐데! ……아니다 그럴주변도 못되는사람。그러타 무슨큰일을계획하는 무슨주의자도못될것이고。…저녁마다술내를피우고 드러오는것을보면 역시술때문이지! 아니다술에꿀코고라서 하혈까지하는사람이 술에미처그럴리업다。술에인백이사람가트면 집안에서도 안먹고백이나! 암만해도 계집때문이야!

명례는 벌서 질투의불ㅅ길로 활활타고잇섯다。

──얼골이저러케 반반하니까 계집들이 시려하지는안을테고、한가지를보아 열가지를안다고 마음내킬때 나한테하듯하면 계집은 녀녀히호려낼솜씨。장가안드럿다는것을 내세우고 도라다니면 지금처럼 로처녀만은세상에 애인하나 맨들기쯤은 밥먹기보다 쉬울것이다。양복떼기나 솔질해입고、몸에 냄새안나게 샤쓰를 빨라입고다니니까 과히 군색지안은청년신사로알레지!。사흘에한번 양복바지를다려 금을내주고、닷새에한번 샤쓰를 빠라주고、이틀에한번 양말을빠라입히고 하는사람은 누군데! 장가안간 사람으로알고 덤비는년도 미친년이지만 날가티 속못채리고 뒤바지하는년은 더쏠개빠진년이야! 내가 왜진작속을 못채렷슬까 왜못차렷서!

명례는 금방 미칠듯하엿다。뱃속이유하게 코만골고자는 남편이 원망스럽다못해 무러뜻고십헛다。재호는 무슨 조혼꿈을 꾸는지 입맛을 쩝쩝다시기도하고 빙그레웃기도한다。

──엇던년하고 꿈이도 조와지내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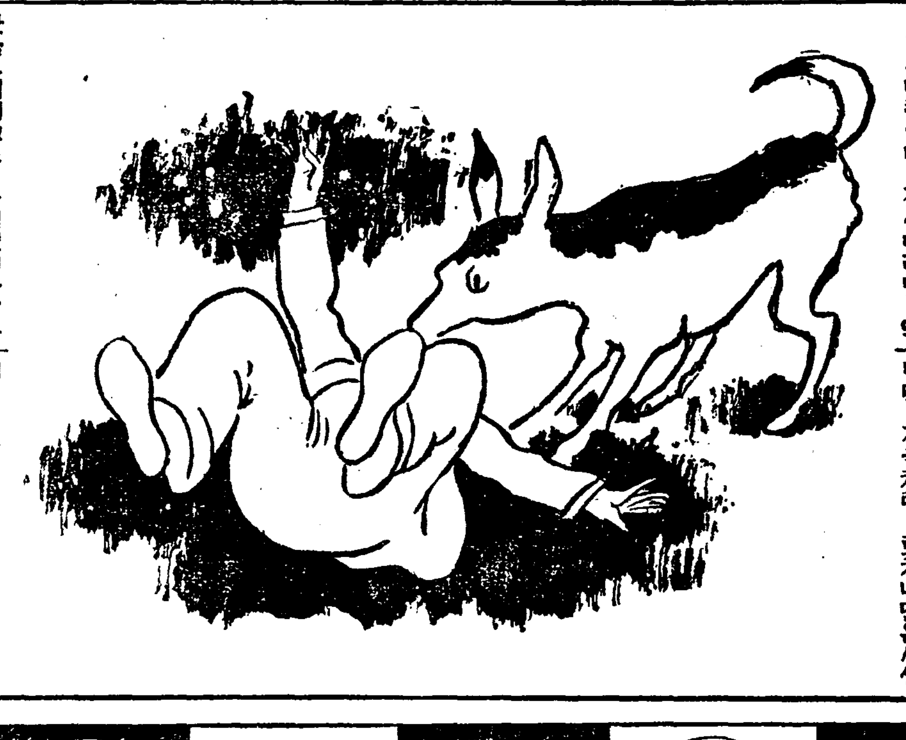
명례의심경은 말할수업시 착난했다 더참을수업섯다。무심히 잠만자고잇는 남편의얼골이 빤빤스럽게만보엿다。

『예ㅡ끼!』

어느틈엔지 명례의 세손까락이 재바르게 재호의 코를 홍켜쥐엇다。그리고는 수동고동을 틀드시 뒤트럿다。

재호는 물에빠진사람처럼 두어번 허덕허덕하다가 빨떡이러낫다。무슨영문인지를 몰랏다。

꿈나라ㅡ 그어떤녀성의집을 창아래에서 휘파람을 불다가그 무서운 쉐퍼ㅡ드에게 코를물려 회동린생각만난다。



品質純良·效力絶大

味の素 (아지노모또) (登錄商標)

家庭料理、料理店의料理、各各特徵調味는잇슬지라도참맛은모다이것으로부터

宮內省御用達 味の素本舖 合資會社 鈴木商店

5—A

京城古蹟 小巡禮

放送局과 朝鮮호텔

⑥ 湖岩

現 代文明의 尖端을 걷는 貞洞의放送局과 長谷川町의朝鮮호텔은 古蹟으로볼때 매우由緖가 깁흔곳이니 하나는 王后의陵터이엇고또하나는 公主의宮터이엇다 좀더仔細히 말하면 太祖의 繼室인神德王后康氏가 太祖五年(西一三九六)에 도라가매 太祖께서크게悲哀하시며 生前의 그內助한 功德을 생각하사 高貴하신帝王의몸으로 親히 다니면서 陵地를觀察하신일까지 잇섯다 그리다가地官의말을 따라 都城內皇華坊北原을 陵地로擇하야 거기康后를 埋葬하고 陵號를貞陵이라命名하고 高麗의例에 依하야道洵寺를陵側의東便에 세우니 이것이後來禪宗의 山本이 된 有名한 興天寺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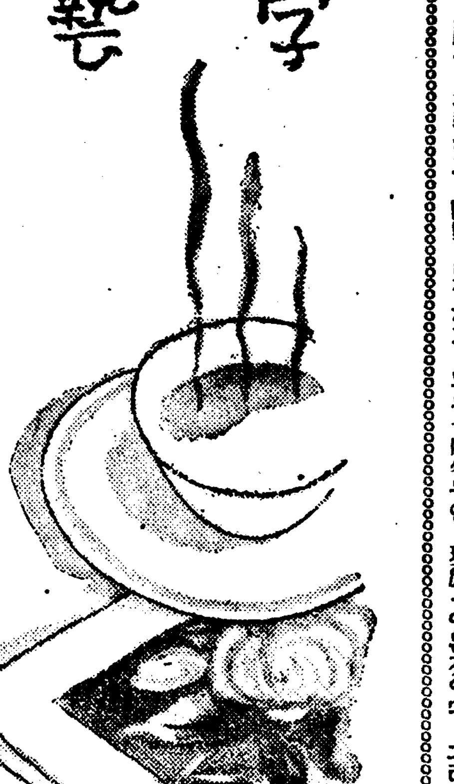
貞 陵의位置는 現京城放送局터이것고興天寺의位置는 英國領事館近處가되것다한다 어쨋든 지이一團의땅을貞陵洞이라 貞洞이라고 브르게된것은 이貞陵으로부터 轉稱하게된것이다 太宗八年에太祖가도라가시매 그翌年봄에 太宗이 貞陵을 城外의楊州沙乙閑이란곳으로 옴기니 太祖五年丙子로 太宗九年己丑에 이르기까지 무릇十四年동안 現放送局자리에貞陵이 잇섯다 京城을빗내하야 各地方의人士에게娛樂과敎化를 아울러주는이放送局도五百年前에는 太祖의사랑하시든 康氏의遺骸를 奉安햇든 곳이엇슴을 알어야 하겟다 人世의變遷이 어처럼놀래지 안흘수업다.

朝 鮮호텔로 말하면 往日賓客이 구름가티 모혀들며 門前에 車馬가 끈일적이 업다 그러나 이땅을 時間的으로 볼때 언제나 이처럼繁華한것이다 李朝初에 잇서서는 太宗의둘재따님慶貞公主의宮이 여기잇섯는데 俗稱小公主宅이라고 하엿다 現今까지도 朝鮮호텔南側의 小路一帶를 小公主洞이라 公洞이라부르는것은 이때문이다 그런데 이公主의남편인 綸大臨은開國元勳趙浚의 아들로 駙馬가되어 太宗의駙馬가 김혓슴으로그 威勢가 나는새라도 떠러칠만하엿든것이다 그러나 그가 威勢를 맛고 너무나 驕縱하야 猥亂한行動이 잇섯스니 그 亡射된 別名까지 듯게되엇다 그의 驕恣가 얼마나 極度에 갓든지 路上에서 姿色이잇는婦人을 보면 强制로 凌辱을 加하엿슴으로

高 貴한駙馬의 身分임에不拘하고 大司憲李原의彈劾에게 봇들리어 打殺을 當하게되는바 이危機一髮의 際에 公主가 맨보선발로 宮中에 뛰어드러가 太宗께 呼訴한結果 御命으로 살아나게 되엇다 그러나 驕縱無道한 綸大臨은 事變 富貴를 安享하지 못하고 逆謀에 몰리어 敗亡하고 말앗다 이地點이 李朝 中葉의 宣祖 때에 이르러는 宣祖의 셋재아드님 義安君의 宮이 되니 이를 南別宮이라稱하엿다 그後 壬辰亂이 일어나매 日軍總大將인 浮田秀家가 거의 一年동안이나 이南別宮에 總司令部를 두엇섯고 그翌年에 日軍이 京城을 물러가고 明軍이 京城에 드러옴에 미처서는 明將李如松이 또 이南別宮에 駐屯하엿섯스니

南 別宮은 이로보면 그當時全京城이 火災에 걸리지아니햇든 模樣이다 어쨋든지 現朝鮮호텔자리는 王氣에 깁흔 關係를 가진 곳이다 특히 近代에와서는 一八九七年丁酉九月十七日에 高宗이 어덕上에서 大皇帝의即位式을 擧行하셧다 壇은 三層化岡石으로 싸앗고 그지붕은 黃色圓錐形이엇든바 大正三年에 이朝鮮호텔을 지은것은 그자리에 다아는 南壇이어니와 오늘날朝鮮호텔 後園에 入角三層堂이 남아잇는것은 일즉 圜丘壇北에 세웟든 皇穹宇라는 神壇이다 世人이 이 皇穹宇로써 圜丘壇이라고하는 것은 잘못이니 皇穹宇와 圜丘壇은 別物이다.

學藝



自由主義文學批判

自由主義沒落과英文學

【1】 崔載瑞

一、英國自由主義가沒落하기까지

自由主義가 封建時代의 特權階級에反抗하야 個人의才能과活動을伸張하라든 一種의

急 進的思想이엇슴은 이제 새삼스럽게 말할 必要도업다。一八四〇年代라면 아직도 歐羅巴의處處에 封建的風習이남어잇서 法律과貿易을 阻害하든時代엿다。아담·스미스와 제리미·벤삼의 랫세페엘(自由放任主義)은 個人의自由로운活動을阻害하는 이모든障碍를破去하라는 自由主義이엿다。그리고이思想은大體로보아 一八四八年부터 一八八〇까지 英國을支配한指導原理이엿다。放任主義(랫세페엘)은 對內政策에잇서 政府의干涉을最少限度로制限하고 對外政策에잇서 自由貿易과 國際

協 調를圖謀함으로써 目的을삼엇다。이것은 當時의 個人主義的傾向에適合하는政策이엿슴으로 社會大衆의支持를밧을수잇섯다。그리고 이랫세페엘의理論을 科學的으로完成한 사람은 하-빠트·스펜서-이엿다。進化發展의自然的結果로서 랫세페엘은 現代産業時代의指導原理가되지안을수업슴을 그는生物學的으로 證明하얏다。그러나 十九世紀自由主義는 아마도 스펜서-의理論에서

絕 頂을極하얏다고 볼수잇슬것이다。웨 그러냐하면 一八五〇年以後로부터 英國의國內情勢는一變하야 이 새로운社會情勢에適應하는 새理論이 期待되기때문이다。

自由主義가 그本來의性質로서 建設的手段이라는것보다는 消極的破壞手段이되다함은 現在에잇서서나 過去에잇서서나 免치못할悲劇的運命이라할것이다。스미스와벤삼의 政府無干涉主義는 果然封建的障害를물리치어서

個 人의自由를確保함에成功하얏다。그러나 製造業者와商人의自由는 반듯이勞働者의自由이냐하면 그러치안타。도리여兩者가相反하는것이 常例이다。一八八〇年頃에 英國이當面한社會問題이엇당이 社會問題를 解決하라면 全然새로운哲學의建設은안일망

정 적어도 舊哲學의修正만은 避할수업는 形勢이엿다。이修正은『自由論』으로말미암아有名한 쫀스튜아-트·밀의著作에서 企圖되얏다。밀은 이論文가운데서

自 由의槪念에 아즉까지보아도 깁흔精神的解釋을 내리엿다。即그는 各個人이物質的利益을發見하고 追求함에必要한 말하자면 行動의外面的自由의槪念을 떠나서 各個人이 精神的獨創性을 自由롭게 活動식힘에必要한 內面的自由의 槪念에到達하얏다。이內面的自由로말미암아 各個人은 活力과多方面의活動을期待할수잇고 또 이가튼活動에依하야서만 社會는 豊富하고도 均衡잇는發達을圖謀할수잇스리라는것이 밀의

根 本的見解이엿다。이리하야 그는『代議政體論』에서도 가튼精神下에 뻰삼流의民主主義勝潮를 칠신精神化식혓다。自治制度란 社會階級의利益을犧牲하야 各個人의私制私慾을追求하는 自由를 圖謀하는 政治라고생각치안코 各個人이 精神과 性格의圓滿한 發達을實現함에 必要한條件이 即代議政治라고 解釋하얏다。그리고 이圓滿한發達은 社會全體의利益을抱擁할수잇는데까지擴大될때에 비로소 可能하다고생각하얏다。따라서 밀의哲學에잇서

功 利主義는 漸次로 個人主義的色彩를일코 社會主義的色彩를띄우게되엿다。그의目標는 社會的效用이엿다。그리고 이社會的效用을爲하야선 自己自身을犧牲함이 個人의最高義務이엿다。따라서 그는 富의分配를統制할만한 廣大한機能을國家에委託하얏다。여기서 우리는 벤삼流의 個人的功利主義가 稀薄하야짐을 볼수잇다。이리하야 밀은 自由主義沒落의 첫거름을내디딘 過渡的思想家의 代表者이엿다

一八八〇年頃에이르러 國家

無 干涉主義는 벌서 英國思想界를支配할만한 힘을 일코말엇다。이自由主義頹落이 社會의 一般的情勢의 所致임은 말할것도업거니와 表面에나타나서 이思想을 左右로攻擊한 有力한 二大思想을 우리는 볼수잇다

隨想 서울의面貌 5

金復鎭

平和를 사랑하라는福音보다도 아주까리나 苦草를 심으라는말이 귀속으로 쏙쏙들어간다。인프레-숀-데프레-숀의波濤에 漂流하야 泰山을넘고 沙漠을건너 商品은곳곳이侵入한다。文明을가라치는 重大한使命을지고 訪問한다。새로운市場을開拓하려 不毛地와 處女林을 突進한다。千里를挺進하는 精力은잇서도 購買力이업는 消費者를勸誘할智能은업다。生産力은 無限的으로增加하나 消費市場은加速度로狹하야진다。生産은過剩되고在庫品은山과彷彿하다 人蔘실은船倉을바다에집어넛코 穀食을

△ ▽

어느날 길거리에서 한려굴은 老人으로부터 孫주아해入學식힌 자랑을들엇다。自己와親한學校先生에게 累累히 孫子의入學을依賴하엿더니 入學試驗前날에 先生이 自己를차자와서 來日試驗엔 사람얼굴에구녕이 몃개나되는가 그것을뭇을터이니「눈구녕이두개가잇고、코구녕이두개가잇고、입구녕이하나이고、귀ㅅ구녕이둘이어서都合일곱입니다」라고 對答하도록 孫子兒孩에게미리가르쳐주라고함으로 밤이늣도록 擬制試驗을하여가지고 잇흔날 學校로갓더니 果然그問題가낫습되다。그래 孫주놈은 入學하엿답니다—라는、수수꺽기비슷한 자랑을들엇다。職業婦人의資格으로는 美貌가第一要件이고 그우에 愛嬌나잇스면 就職戰線에서、거칠업시闊步하며 쌜라리맨의資格으로는 스포쓰의하나라도 熟達할것이다 (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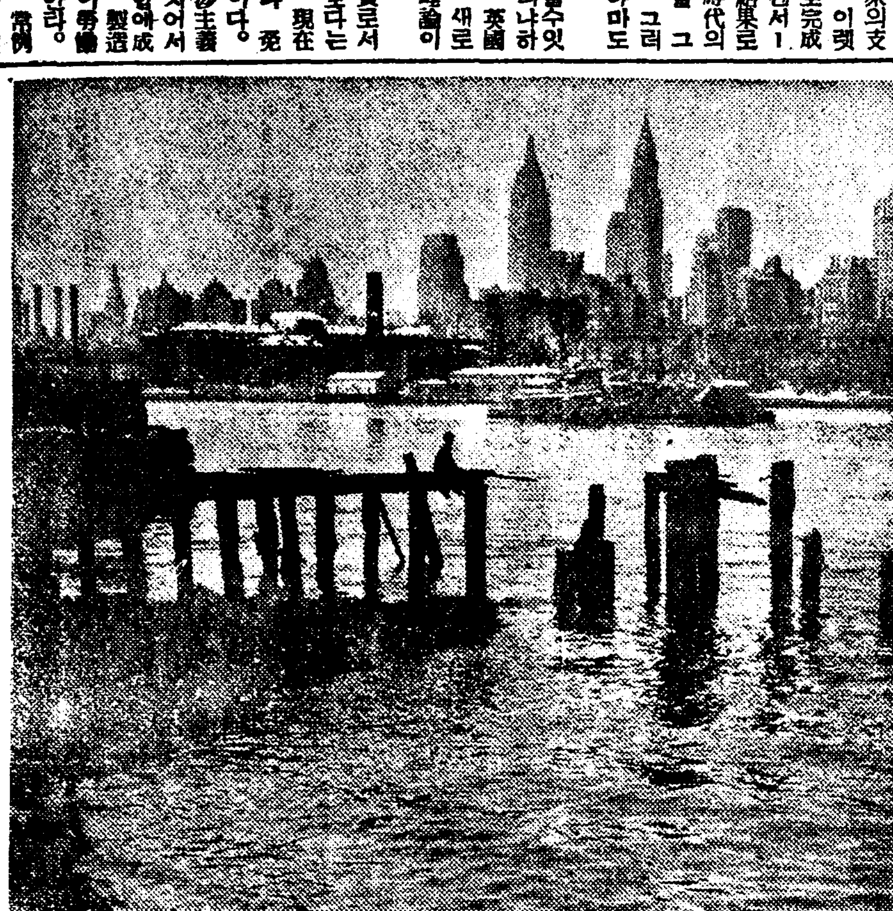
도대체生이라는것은 무엇이냐、歷史는무엇이냐、文化는무엇이며 藝術은무엇이냐。사람의一生은짜릿이냐?享樂이냐?詩人은꿋방아를찟코、俳優는춤을춘다。人生은 고흔것이라고 人生을享樂하라고 다시이것을 哲學者는 合理化한다。카페안에서난 靑春을노래한다 果然人生은고흔것일가……

서울이 어대냐?朝鮮의中央이어대냐?紳士들이 對答한다。우리들의서울은어대냐?新女性은答辯한다。巨里가넓고、아스팔트를깔고 自働車가다라나고、阿房宮이櫛比하고、百貨店에 商品이가득하고、카페女子가 어여쁘고、그리고自己네가 人生을享樂하는곳이라고한다

우리가찻는서울이여긔냐?우리의中心의果然이곳이냐?우리의몸에는 千年前힘줄이뛴다。우리의皮膚는 歷史를가진 꿈을發汗한다。이힘줄、이땀으로만드러진서울이 果然이곳일가?歷史의中心地、文化의發祥地이고、藝術의原産地가 이곳일가?서울의歷史는 우리들의힘줄의 來歷이다。서울의文化는 우리들의 땀의結晶이다。서울의藝術은 우리의呼吸의抑揚이다。서울의眞相이 네거리가아니고 서울의全貌가 阿房宮이아니다。

우리가찻는서울이다。우리의힘줄은活動한다。그럼으로 서울은活動한다。決코뻴딩이나 自動車나、라되오나 百貨店이나 紳士의무리나 新女性이 서울이아니다。이것을都合하기는 우리아니다。이것을都合한것이서울이다。生産하고 呼吸하는것을 우리가주엇다。

우리가서울이다。서울을 찻는 우리가 우리를 찻는것이다。「네自身을알어라」。自己를發見하라。서울은 우리어니 우리를찻자!(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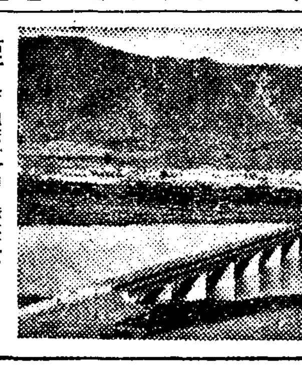
뉴-욕-의哀愁 【黃金都市의落照·歡樂港에滿潮】

紀行 北滿周遊記(一)

方建斗

半島의首都京城에서 放射하는 二條의線을따라 하나는平北新義州에 다른하나는咸北南陽에 비끄러매고 다시 그線을 屈折시켜 國際都市哈爾賓에 交叉시키면 보기조흔菱形을일우운다、나는昌慶苑、景福宮의 滿開된夜櫻을避하야 지난四月十四日밤열한시、이、菱形의 各邊을一周코자淸津行列車에 올럿다。

道中、山은六花의粉가루로 化粧하고 들은벗꼿의봉음으로 丹粧한 安邊에들리고、아직 殘雪이 山谷에 남어잇스나 모래찜(溫泉沙浴)을하는 朝鮮의別府朱乙을보고、東海물이 출렁거려天與의良港을 이룰뿐아니라 咸鏡線의全通、京圖線、圖寧線의開通으로 新興氣分이 漲溢한 淸津에 一泊하고



松眞山脈에圍繞되며 露滿國境의關門이되여잇는 雄基에도用務가잇섯슴으로 南陽에到着한것은四月十九日午後네시경이다。

豆滿江건너 對岸의뽀얏키에車窓을通하야 仔細히 보니 黃砂가 바람에 날리는 光景이다 아!이것이 國境情調인가? 어제아츰 哈爾賓發포구라行 國際列車가 海林附近에서 눈보래로가도 오도못하고섯든 先發裝甲列車와 衝突되여倒壞가리 粉碎되엿다는 뉴-스를보고 列車顚覆、殺戮、拉去、等等 北滿旅行이아직危險하다는 가지가지의 말을 준 列車中에서 或은 旅館을 차저 國境人士에게서 들은지라 京城으로 돌아갈가하고 까지생각하여보앗다 荒塵萬丈의 저滿洲벌을차저 情들고、낫닉은 故國江山을 永永떠나가는 同胞의情景이 눈압헤나타난다、斜陽의힘업는光線이 바람에날리는 먼지를通하야 無數하게 나라나선 洋鐵집웅을 反射시킨다 이것이 平北으로말하면 新義州에比할南陽이다

新義州가검푸른

瓦家로 덥히고 붉은煉瓦로빗나는대신 이곳은 洋鐵집웅、너울단이 바람에擴張되다、바람에날을가비帽子號를떠쓰고群에나렷다 圖們行連絡車가업슴으로 그날은 처럼 늘어선旅舘이들을해처고 市內로 들어가니 여긔저긔『빠라크』假屋에『貸家』廣告가 부터잇다、一時만은 期待를 가지고 各地에서集中하엿든 사람들이 性急히 發展할것갓지도안흠으로、貸家廣告를 부치고간모양이다、

사람이 頻繁히 가고 오는곳을따라나가니 欄干도업는 좁은鐵路가보인다 이것이豆滿江鐵橋다、關門式鴨綠江鐵橋의宏壯함에 比하면 鐵橋라고할것도업스나그러나 稅關이잇고 오고가는사람의 所持品을 檢査하니 堂堂한國境鐵橋이다 圖們으로가는

物品은東海岸產

魚族食鹽等이고 南陽으로오는物品은 標草、糖類等이다 每日이魚族을날러다팔아서糊口하는사람이千餘名이라고한다

나는、朝鮮도아니요 滿洲도아닌豆滿江鐵橋한가운데서 男負女戴하야 이바찬거리를 나르는조고마한移動商人의무리와 悠久히흐르고잇는 豆滿江의 푸른물줄기를바라본다 豆滿江은決코넓은江은안이다 小學校時代에 豆滿江을 鴨綠江다음가는 大江으로 듯고배와왓더니 오히려漢江의반만도넓지못하다 너무期待가 컷든까닭인가! 江左岸에 南陽의約倍나되여뵈이는 急造都市가 잇다 이것이 南滿의安東縣과 가튼 役割을할 國境都市圖們이다 圖寧線、京圖線、咸鏡線의連絡地點이요 北滿物產을 含吐할都市로되 그리繁昌하지는못하다 滿洲에有名한 馬車도볼수업고 中國式建物도 보이지안는다 崔昌林氏案內로 市內를一周하고旅館에 돌아와일숙이자기로하다。(사진은南陽市)

●訂誤、昨號五大宮殿第一段第三行 慶雲宮의『慶雲』은慶運으로 第五段第廿二行『慶雲이라改稱』은 慶雲이라復稱으로訂正함 同五段第一行『李太祖의御邸』는 元宗의御邸로訂正함

모스크바에 聲啞劇團

十五年記念劇成功

【모스크바發聯合郵信】모스크바에는여러가지色다른演劇이잇다그中에도 귀먹어리와벙어리의劇團이다 그런데이들은俳優로서조금도서투르지안흔 훌륭한演劇을한다 同座는創立以來임이十五年이되비最近十五周年記念으로 내노흔심러-의『간와戀』은 大成功을하엿다 各紙의劇批評家는同座의俳優들을絕讚하며 말을하는俳優가表현치못할獨自의 雰圍氣를비저내여 그演技는참으로絕妙하다고 極讚하고 또色彩豊富한衣裝이나舞臺裝置는宛然한無聲時代의 天然色映畫를보는것가텃다고한다

俳優들은 입으로말을못하는대신모든것을深刻한데 놀랄만하엿다고한다 十五年間에同劇團는마흔名俳優를내여노핫는바 一座의名演出者B·츠포리킨氏도 亦是벙어리다 그런데이劇團의 俳優는모두가 初對인데 公演以外에는 제각기職業에從事한다

詩 五月의密使

夕影

五月의 당신은 明朗하외다
지금 당신은——
五月의 물고기、五月의 풀포기、五月의 뻐—국、
五月의 白沙場、五月의 洋屋
露臺의 花草、五月의 汽車、
五月의溫泉、五月의密室을생각하시는까닭입니다

당신은 두껍 파라솔—로 해빗을 가렷스니 決코 그고흔얼골은 거르실리 업습니다
땅바다에 그려진 五月의 맵시잇는 당신의 그림자를 보시기조흘것입니다

五月의당신은五月의女神이외다
오늘도 電車를타고 西大門에서 東大門、東大門에서 漢江까지 섯다안젓다 五月電車의女王노릇을 하섯습니다
오늘에 電車를탓든이들은 오늘은 당신만을 위하야 사럿슬것입니다 꿈을주엇슬것입니다
당신은 그 여러사람에게 幸福을 끼치섯습니다。그것은 저들의 姉妹가 당신인까닭입니다

당신은 人間이 神에게보낸마·다하리·
다하리· 神이 人間에게보낸 마·다하리외다
그러기까닭에 당신은 神을위하야 人間에게 몸을 던지고 人間을위하야 神에게 窮을맛친것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은 사려서도마·타하리·
죽어서도 마·타하리외다
그러기에 五月의 빼이블이당신의 그 보드러운 겨드랑미테 끼워다닐때
五月거리의 天使는 당신이라하지안는 사람이 업구료

五月의당신은明朗하외다
明朗한天國에서오신 五月의默示요 五月의 戒銘의꼿이외다
사랑하소서 이따를사랑하소서
도모지 이따의사나희들을 天國에팔지마소서
地獄의아들들을 이따의女人에게팔지마소서

五月의 明朗한당신의聲樂
五月의 輕快한당신의 총다리의律動
아름다운이여 이따에惡의華를 뿌리지마소서

短篇小說 初戀 (7)

오올더스·헉슬레이 作
高滑民 譯

『제가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그러고나서 그는 압흐로 나와서 손으로 사나히의 머리를어루만젓다。아아 말로는 나타낼수업는 련련한 애정!『당신도 천치구려』 민니는 속삭엿다。『당신한테대한 저의사랑의정도가 이만한일을 못할것이라고 생각하섯서요?』

휴버트는 얼골을 들지안햇다 물은 그의 눈압헤서 빗그러저 흘러가고 흘러갓다。민니의 손가락은 그의 머리칼속에서 제멋대로 놀다가는 그의 목을 어루만지엿다。그는 돌연히 이녀자에게대하야 적극적으로 중오를 늣기엿다。천치가튼것! 왜 이러케 눈치가 업담?

나는 이녀자가 조금도 욕심나지안는다。그런대 도대체 무슨까닭으로 그러케 생각하엿섯슬가? 긔차를 타고오는동안 그는끄님업시 자문(自問)하여왓다。어째서? 무슨연고로? 그렬고이 의문은 방금정원으로드러오는 문엽헤 서서잇섯슬때한층더 절실히 번복되엿든것이엿다。능금나무 좋으로 거진 일분동안이나 그는 민니의 모양을 바라보고 서서잇섯다。민니는 그것을 알지 못하엿다。민니는 란간에 안자 갈색눈으로 멍하니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다가는 눈을 흘려 정원을 도라다보앗다。그리고 마치 저능아처럼 럼비인 표정을 해가지고 혼자서 웃고잇섯다。

휴버트는 피비를 생각하야보앗다。휴버트는 어제 철떡 벗거진 백아(白堊)의 언덕우에 서잇섯다。그들의 발밋헤는바다와가치 질편한 평야가 내려다보엿다。히미한 지평선우에는 영웅가튼 기상으로 구름이 옷득소사잇섯다。바람의 손고락이 그녀자의 붉은머리다발을 쥐여올렷다。그녀자는 마치 바람결이 소연한풍중으로 뛰여올려갈랴고 몸의균형을 취하고잇는것가튼 포즈를하고잇섯다。

『정말 날려밧스면 얼마나 조흘텐지요?』

하고 그녀자는 말햇다。

『비행사에게는 독특한 매력이 잇서요 저는 늘 그러케 생각해요』

그러고 그녀자는 언덕을 뛰여내려가버렷든것이엿다。

그런대 민니는 엇더한가。우중충한 머리빗、농군처럼 붉은몸、크고 느린 몸집——마치 농사집처녀갓고나。무슨까닭으로 내가 이녀자를 요구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게되엿슬가~ 더기 맥힌일은 그녀자가 귀찬코 실증이 날만치 나를 련모하고잇단것이다。——조용히 안저서 중대한일에 마음을 집중할려고하는판에、추근추근하게도 발밋헤서 뒹굴고 손바닥을 할트려고하는 강아지와도가치。

휴버트는 그의 애무의 손이닷기안토록 몸러섯다。그는 일순간 눈을 드럿다。그 두눈은 차디찬 노기(怒氣)로 핫해진것사려보엿다。그는 다시 눈을떠려트렷다。

『그히생은 너머나 큼니다。』

그말소리는 다른 사람의 말소리인것처럼 휴버트에게 들렷다 이런일을 정말처럼 시침이롤때 고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란 것을 잃엇다。『나는 그것을 당신에게요구할수는 업습니다。』이배우는 한번더되집니다。『그러치만 그건 히생이 안예요。』하고민니는 항의하엿다。『그것은 깁봉입니다。행복입니다。아이구 알지못하시겟서요?』

휴버트는 대답이업섯다。끔찍달삭도 하지안코、그는 딸꾹치를 란간에 언고、흘려가는 물을 무겁게 내려다보고잇섯다。민니는 그를 바라보앗다。처음에는 다만어절줄을 몰랏슬따름이엿섯다。그리다가 돌연히 무어려고 할수업는 몸이 부서지는것가튼 심한 의혹(疑惑)에 휘차엿다。침묵이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그의혹은무서웁게 커갓다。마음속의 그의혹은 민니의 행복을 모조리 집어삼켯다。그의 마음속에는 드듸여 의혹과 공포이외의 아모것도 남지안햇다。

『엇더케된 일입니까?』민니는 간신히무럿다。『왜 당신은 그러케 이상합니까? 엇더케된일이얘요? 휴버트。엇더케되얏단말이예요?』

양키-의깃븜이 여기에도 미국미아미해안에서 옷토-氏라는이가 상어를잡엇는데 색기가 열두마리、그분이 퍽깃버하는모양

朝鮮映畫의□□ 압길을위한數語 (4)

A生

또는 그들에게 生活保障을해준다면 카페-나、妓生집으로차저다니지안허도 名女優가나아올것이다 都大體먼저 映畫를 製作하는 큰組織이잇서야하고 이組織體를 잘-運轉해나아갈 人物이잇서야하고 偏重하는일이업시 公明正大한 말하자면人格者가 이映畫界에 잇서야한다 또는 俳優나 其他映畫人은 彼此에生活其他를 도으라하고 서로서로살리랴고 애서야만될줄안다 그리고 이社會人들과接觸을 늘-하야 自己의새로운演技를 거기서엇고 일혓든 社會的信任을 다시차저야만된다 모-든藝術家中에서 萬人이 渴望하는 人物이되여야만한다

어쩌지안흔 말가트나 映畫人諸氏의 빗나야만할 未來를 꿈꾸는 당신들과 가튼 생각으로 筆者는 誠意의 한끗을 보힐뿐이다。

◇

以上에 數言은 映畫界當事者諸氏中에 誤解할곳도 잇슬지모르나그러타면 지금까지 朝鮮映畫의 發展을위하야 誇張을해서라도 讚美해온터인까닭에 또맛게 當하는일가태서 그런분도잇슬줄아나 無理대고 추는것은오히려助長이못되는일이만흔故로 失禮되나마 默默히생각할課題를 提出함에지나지안는다는것과 朝鮮映畫의압날을위함이란것을 아러주기바라는바이다

筆者까르 未熟힌 映畫劇本을 내여노하 멧멧映畫人들께나 一般製作諸氏에게 惠擧지는일이잇서 어느機會이든지 그것을씨스라하거나와 讀者諸氏도 以上의數言에對하야 그것이映畫人士를 말함이아니요 朝鮮映畫界의압날을위하야 誠究할말한會를 드림에지나지안는다 다만 한가지안사람의일을 그집안사람이가려이야기함에 지나지안흠으로、압흐로는 이朝鮮映畫界를 못도드고 斯界의不過한 이들을 도아서 어떠한 큰 貢獻이 잇도록 努力해주기 바라는 바이다 事實 지금까지의 映畫人은 朝鮮映畫史를 빗낼 맨첫번의 功勞者들임을 어저서는 안된다。그러나 아프로 더큰 貢獻이잇기爲하야 映畫人自體도 새로운 차림으로 나서야 될줄안다 그리고 생각잇는 事業家들은 이將來에 바람이 큰 映畫事業에 速히 눈뜨기를 바란다。

—【完言多謝】—

新刊紹介

▲宗教時報 五月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朝鮮耶蘇教長老會總會宗教教育部發行 定價五錢

▲四海公論 第一冊(主要內容)經濟中心한國策、小說의定義、朝鮮小說史、創作=國境의안해 外數篇 其他 京城府竹添町一丁目 四海公論社發行 振替京城九八六〇番 定價十錢

▲東洋實業 五月號 東京市本鄕區三組町八一 東洋實業社發行 定價五十錢(和文)

▲高麗興信報 第四十八號 京城府苑洞一三四 株式會社高麗興信所發行 定價一個月五十錢

▲朝鮮醫察 第四號 京城府初音町一四四 朝鮮醫察新報社發行 振替京城一七七二六番 定價拾五錢

▲로-마字 五月號 東京市麴町九ノ內三丁目十二 로-마字히로메會發行 定價二十錢

▲東洋醫報 第三號 京城府樂園洞二四〇 東洋醫藥社發行 振替京城一八八九三番 定價三十錢

▲農村通信 第三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長老會總會農村部發行 振替京城一九六四一番定價五錢

▲예수 五月號 平壤府下水口里九〇 예수敎會中央宣道院發行 振替京城一一三六五番 定價十錢

▲靈光 第二十六號 奉天十間房五區一〇九號 靈光社發行 振替奉天八四八番 定價五錢

▲東京朝鮮民報 第九號 東京市麴町區內幸町一ノ六 東京朝鮮民報社發行 定價一部五錢

漢詩

碧梧山人考選

桃花

【選外二】 鐵山 吳華殷

灼灼其華照眼明
一村宛似畵圖成
蓁蓁葉裏蜂群集
點點葩心蝶舞輕
東海蟠根何獨美
武陵春色又今生
落來溪畔誰能網
遯跡閒人忘世情

黑風 【31】

韓龍雲 作
金熊 揷畵

구직(求職) (1)

상해시마로에잇는 직업소개소에 한청년이 나타나서 취직소개를 요구하얏다 직업소개소의 서기는 구직자명부책을 내어노코 그청년을대하야 뭇기시작하얏다

『성명이 무에요』

『서왕한이오』

『서가에 이름자는 무슨자무슨자요』

『임금왕 한수한이오』

『나는』

『스물한살이요』

『본적지는』

『항주서호 안마을이오』

『현주소는』

『아직 일정한주소가업고 텁시로 무료숙박소에 잇소』

『무료숙박소라니 어느 무료숙박소란말이오』

『자유로동자무료숙박소요』

『자유로동자숙박소가 사천로에잇지』

『그럿늬다』

『몃호이든가』

『일백구십삼호요』

『학문은 얼마나 배웟소』

『학문이라니요 소학교를 겨우졸업하고 삼년동안 농사일을 하얏소』

『직업은 무슨직업을 구하우』

『아무직업이라도 하지오 직업을 가릴수가잇소』

직업소개소 서기는 왕한의 말하는대로 구직자명부에 쓰고나서 다시 왕한을보더니

『가서 기다리시오 요구하는곳이잇스면 통지할터이니』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슴이오』

『언제까지라니 기한이 잇슬수가잇소 래일이라도 요구하는곳이 잇스면 통지하는것이고 업스면 언제까지라도 못하는것이지오』

『지금 시일이급한대 그러케한만하야서 될수가잇소』

『그것은 당신의사정이지 당신사정이 급하다고 어듸일이 돗대로되오 여기서는 통변의요구가잇스면 소개하야 줄뿐이오 억지로는 못하는것입니다』

하는 서기는 우스면서 힐끈쳐어쳐 안드리고 말하얏다

『지금 며칠동안 상밥사먹을 돈도 업는데 오래기다릴수가엇소』

『그러면 작지에 엇지말고 집에가서 게시오 맛당한곳이잇스면 집으로 통지할터이니』

『집에잇슬형편이되면 무엇하라 나와것소 집에도 먹을것이업서서 잇슬형편이 못되오』

『그러니 어쩌다말이오 지금이라도 나가서 다른데라도 구해보시오 여기는 그만해두고』

왕한이가 또 무슨말을 하라할지음에 등뒤로부터서

『여보 그만하고 나오시오 다른사람도 말좀하것소 무슨 잔소리가 그러케 만소』

하는말이 조금 불쾌하게 나온다

왕한은 하라든말을 멈추고 뒤를 도라보니 멧십넝이나 되는 구직하려온 사람들이 발꿈치를 맛대고 차례로 너러서서 압해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다 왕한은 그것을보고 오래잇기가 미안하야서 하라든말을 중지하고 나와버렷다

왕한은 무룰것도업시 서순보소학교를 마치고나서 학비가 업슴으로 공부를 더하지못하고 농사일을 하얏스나 얼마아니되는 소작농을 지어서 집안식구의 제량도 되지못하얏다 자기스스로가 가난을 견대기가 어려울뿐아니라 늙은부모를 봉양할도리가 업섯슴으로 생각다못하야 무슨직업이나 구하야볼까하고 막연하게 나서서 위원 도회지인 상해로 오게 되얏든것이다 그러나 어데를 돌라하고 직업을 구하기가 그러케 용이한일이 아닐뿐아니라 촌가에서 생장하야 농사를짓다가 호미자루를 갓노코 나와서 도회에대한 경험이업고 취직의길을 조금도 모르는 왕한으로서 생존경쟁이 특별히 렬하고 인사의 번천이 복잡다단한 상해가튼 큰도회지에서 찌른시일안에 직업을 구하기는쉬운일이 아니라는것보다 거의불가능이엿다

왕한은 상해에온뒤에 수일동안을두고 이곳저곳을 다니며보앗스나 번화한빗을보고 시끄러운 소리를 듯는이외에 자기의목적을 위하야는 말한마듸 무러볼 사람이 업고 발한자욱 드려볼곳이 업섯다

化粧의安打!

球場의스피커ー는安打……라고 報導하고 잇다。그러나異常한것은젊은彼氏……彼女들의눈은數分間……스탠드의 一點에集中되엿음니다。아ー웬일일가?

『저ー林樣과水の江樣이군

『참그러쿠면……우리들이써조와하는 저 살으륵녹어버리는 マスターバニシング의第一等팬인만큼 林樣의얼골은……아조 生生하고도빗이환ー한데 오날쯤은꼭볏에안걸도록만히발넛겟지?호호호

『응、엇전지달느드라그조흔행내는말할수업지……아! 水の江樣이거봐요엇전지 살결이별안간에 히여지지안엇서?

『당신이제야아셧서요……저요전번에絹代樣이舞臺化粧室訪問記에도 쓰지안혓서요……저水の江樣의 저조흔살결에꼭맛는カカオ色의 ホムパクト로化粧을하시니저러케도속살까지 美白하게된답니다。

『그래서저러케스마트합니다 그려참으로化粧의安打인데……호호호

잘으륵흘으는潤!

マスタークリーム

마스타크림

バニシング

바늬싱

化粧臺의新女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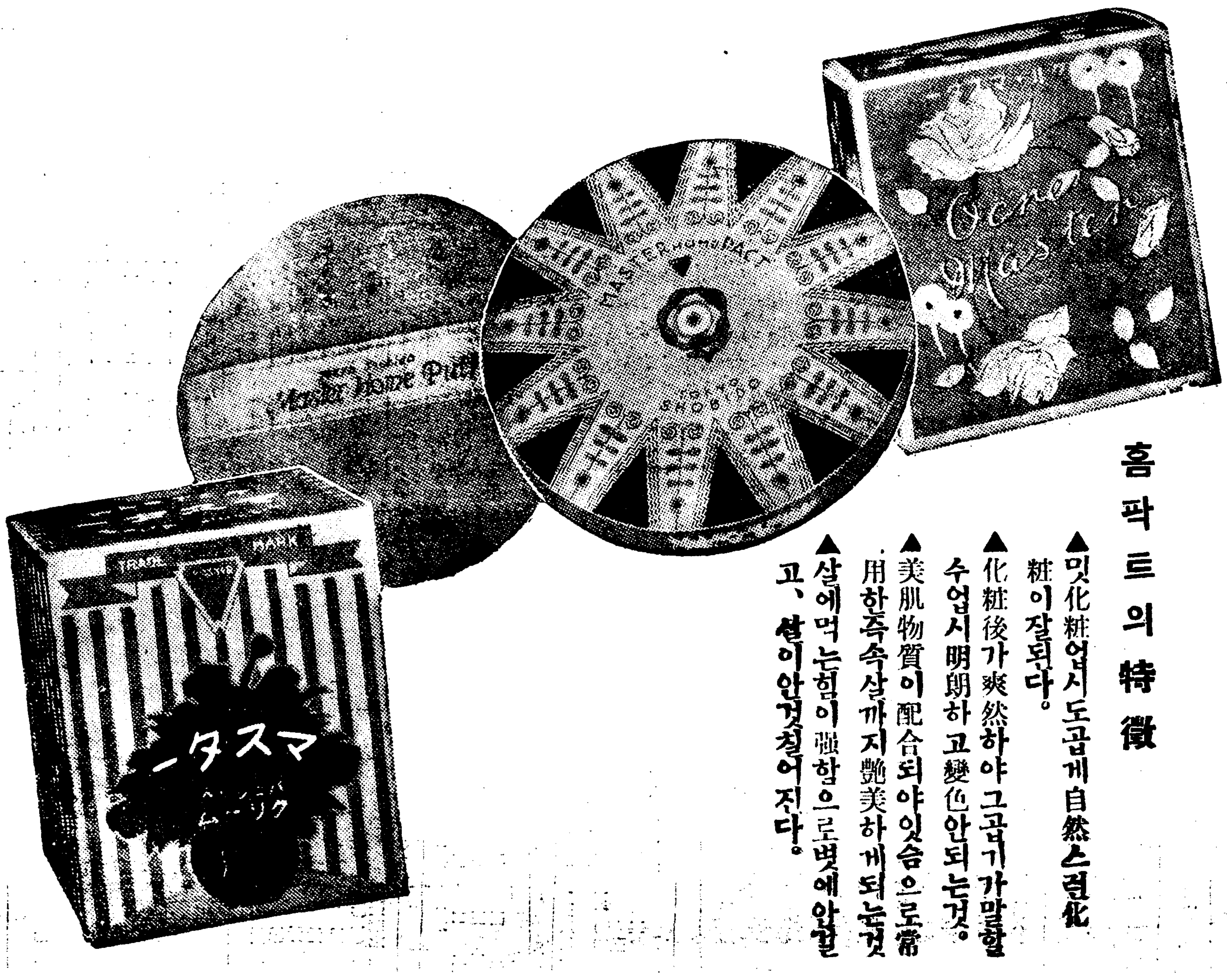
マスターホムパクト

마스타홈팍트

常用하면속살까지

醫學博士 西澤勇志智

最近에 香내座談會를 開催하엿슬때에 松竹에잇는 田中氏가 아조奇妙한듯이 나에게 말한일이 잇는데、白粉크림、오클마스타ー와 마스타ー홈팍트를 常用하게되면서부터 엇전지속살까지 美白하게되얏다고 깁버하면서 말하엿슴니다。이것은比할데업는 美肌物質을 應用한德澤이지요。



홈팍트의特徵

▲밋化粧업시도곱게自然스런化粧이잘된다。
▲化粧後가爽然하야그곱기가말할수업시明朗하고變色안되는것。
▲美肌物質이配合되야잇슴으로常用한즉속살까지艶美하게되는것
▲살에먹는힘이强함으로볏에안걸고、섭이안것칠어진다。

▲家庭用콤팍트
▲優美化粧用페프添付

商況欄읽는法

▲期米編 (十五)

崔 晉 夏

◇東京期米……東京米穀取引所는 明治九年九月二十七日即堂島取引所의 創立보다 二日後에創立된 株式會社인데 該所는비록 首府東京에 두엇다할지라도 堂島에다음되는 市場이다 賣買의節數는 前場八節後場七節이며 立會時間은 前場은午前八時五十分부터 同十一時二十分까지 後場은午後一時三十分부터 同三時까지인데 此亦當中先三期共히 賣買不成하는일은업다

◇日本各地期米……前記와如히 日本內地의 米穀取引所가 總十九個所이나 就中大阪東京兩市場을首位로하고 其次에는 神戶、下關、名古屋三市場을 有力하게 取扱하는 關係上同三市場의 (先限)前場初付(前寄)及前場止價(前引)와 後場初付(後寄)及後場止價(後引)만을揭載하는터인데 就中神戶市場은

◇神戶……神戶는 兵庫縣에잇는市場임으로 兵庫라고도稱하는바同市場은 明治二十九年九月二十六日에創立되엇는데 立會節數는前場十節後場六節이다

◇下關……下關取引所는 明治九年十一月二十日에 創立되엇스며

◇名古屋……名古屋取引所는明治十年九月二十日에 創立되엇다

◇標準米와印……朝鮮의 六個米取引所와日本內地의五個取引所의標準米及印은다음과갓다

◇朝取標準米……朝取標準米는京畿道普通三等玄米인데 此를ⓔ印이라稱하며

◇釜山……釜山米取의標準米는慶尙南北道產大粒三等玄米인데 此가卽ⓔ印이다

◇大邱……大邱米의標準米는 釜山米取標準米를通過하나니卽ⓘ三等米이며

◇群山……群山米取의標準米는全北과忠南一部의所產인普通三等米인데 此가卽ⓢ印이다

◇木浦……木浦米取의 標準米는全南三等玄米이니ⓜ印이 即 이것이다

◇鎭南浦……鎭南浦米取의標準米는 ㉼印의普通三等 玄米다

◇大阪……堂島標準米는讃岐三等玄米

◇神戶……神戶標準米는昭和九年七月부터朝鮮米로 上場하기때문에 木浦取引所의標準米인 ㉼三等米를渡出하게되엿다

◇下關……下關標準米는山口縣所產인武作印三等米

◇名古屋……名古屋 標準米는愛知縣普通三等米

◇大阪市中在米高……大阪在米高는 그날그날의 增減을알아日本內地玄白米와 朝鮮玄白米及臺灣玄白米를 區分하야發表하나니 俵는即四斗入으로石으로 換算하자면 總在米高에四로乘한後 十으로除하면 幾石이라는答을得하게된다(繼續)

昨年朝鮮雜穀消費
一人一石一斗九升餘
最多는麥類、次位는粟其他
比前年二升餘減退

【總督府農林局調查】昨年中 朝鮮內雜穀一人消費總量은 一石一斗九升九勺으로 이것은 前年에 比較하면 二升五合二勺의 減少이다 過去中의 最多記錄은 大正八年一石五斗二升五合五勺이며 또 最近의多記錄은 昭和二年一石三斗三升二合九勺으로 減少하엿다가 昭和七年一石一斗九升六合二勺으로 減少하엿다가 昭和八年에 一石二斗一升六合一勺으로 增加하엿든것이 昨年에는 다시 減退하엿다 그런대 昨年一人消費雜穀中 最多한것은 大麥과 粿麥을合한四斗一升三合四勺이며 그次位가 粟三斗一升二合一勺이다 最少하것은 落花生三合이다

▲大麥及粿麥四斗一升三合四勺 ▲粟三斗一升二合一勺 ▲稗二升四合四勺 ▲蜀黍二升九合九勺 ▲玉蜀黍三升八合六勺 ▲小麥八升七合三勺 ▲蕎麥二升八合五勺 ▲燕麥二升二合三勺 ▲大豆一斗六升五合八勺 ▲小豆一合四勺 ▲菉豆一合四勺 ▲綠豆八合一勺 ▲落花生一合三勺 ▲其他豆類三合 ▲合計一石一斗九升九勺

今年消費減難免
米不作으로消費增일것이나
◇麥粟供給不圓滑로

今年中 朝鮮雜穀消費는 아즉모르나 昨年產米의 不作으로 當然히 그消費量은 增加케되는것이 當然하다 그러치만 朝鮮內昨年中 粟不作과 今年麥作의不良豫想이며 또는滿洲粟凶作으로 朝鮮內粟輸入이 不振되는만큼 實際에잇서는 別로增加를 보기가어렵고 或은 도리혀 減退케될는지모른다고 農林局當局者는 觀測한다

南京政府의今後財政策
孔財政部長이聲明

【南京十三日發聯合】南京政府財政部長孔祥熙氏는 十三日 午後 一九三四年七月까지의 過去二個年會計年度中의 一、財政經濟狀態、二、將來의計畫에關한聲明書를 公表하엿는데要컨대 孔氏는 一에잇서 就任以來의 自讚自讃을하고 二에잇서는 겨우 中國經濟再建의 必要手段으로 다음과가든項目을 列擧하야 今後의財政經濟政策의一端을 보힌것이다

一、支出을 統制하는 豫算制度의確立
二、未拂債務의整理
三、鹽稅의改革
四、關稅率의調整
五、省及中央稅를調整或은低減하야國稅와의調和를圖함
六、紡績織物生絲等의主要產業獎勵及合理化
七、金融의安定
八、鐵道航路等交通의改善
九、農業의復興及農村經濟의發展

白國銀行의利下
二分五厘를二分으로
十五日부터實施

【電通브럿셀十三日發】白耳義中央銀行은 公定割引步合을 二分五厘에서 二分으로 내려서二分으로되고 十五日의 理事會承認이 잇는대로 即時 實施키로되엇다고 十三日 發表하엿는데 右利下는 同國金融狀況의安定을 보히는 一事實이라고한다

米日爲替暴騰

【紐育十三日發聯合】十三日의 米日爲替는 休日前에比較하면 賣二十八弗七十一仙으로八仙高 買二十八弗六十八仙으로八仙高

▲東京爲替(十四日)

	賣	買
對米	二十八弗十六分九	二十八弗四分三
對英	一志二片三十二分三	一志二片三十二分五

▲大阪爲替(十四日)

	賣	買
對米	二十八弗八分五	二十八弗四分三
對英	一志二片十六分一	一志二片八分一

日中兩國經濟提携
殷蔣兩氏가 日銀側懇談

【東京電話聯合】目下來日中인北寧鐵路局長殷同氏及 上海農商銀行總裁蔣氏兩氏는 十三日門野重九郞氏의 斡旋으로工業俱樂部에서興銀、朝銀、日銀、東西興業等의日本銀行團과의會見을行하고日中經濟提携에關하야 隔意업는意見의交換을 行한바 席上殷、蔣兩氏는 中國財界는 米國의 銀政策에依하야 大打擊을 蒙하고잇다 日貨排斥도 지금은거의 解決을 보앗슴으로 여러가지 觀點으로 兩國의 提携에 가장 조흔時期이다 라고 述하얏고 이에對하야 日本銀行團側으로부터도 相當히積極的 質問을 하얏는데 結局『日中經濟提携는 口頭만으로는 解決되지안흘것으로 먼저中國側으로서는 돈이 必要할것이나 日本도 西原借款의 當時와 如히 餘猶의돈이잇는것이아님으로 中國側과 共히貿易調整의會社를만들어 物物交換을 함이最善의策이라고 생각한다』는意見이有力케되어 合倂會社가實現될것이라고觀測되엇다

日、英、米、佛物價의指數
四月中騰落內容

【日銀調查】四月中의國際都市物價指數는다음과갓다 (基準은大正三年七月)

	東京	倫敦	紐育	巴里
九年四月	一四〇、七	九九、八	一〇五、一	三六八
十年一月	一四四、二	一〇〇、六	一二二、五	三六一
二月	一四六、四	一〇〇、三	一二二、五	三六九
三月	一四三、八	九九、八	一二三、〇	三四四
四月	一四三、〇	一〇〇、七	一二三、五	[illegible]

以上과가티 東京巴里가 떨어젓스나 倫敦紐育이 反騰하엿다 그騰落原因을 보면 東京은 農產物價의低落、巴里는 떼플레政策의强行、倫敦은 輸出稅率의改正、紐育은 銀引上政策으로因한인플레期待等이 各各反映된것이다 即此等主因에 內在한各國各種의苦惱는物價指數에그結果가나타난것이라고볼수이다

朝信金錢信託必然的限定
▲…西崎理財課長談

朝鮮信託會社의金錢信託額이 相當한反面에 普通銀行預金上 威脅을 加하는結果가 되다고 말을하지만 이것은 合同된各信託會社의金錢信託이 合同되때문에 가장만흔것이다 그러타고해서 金錢信託이 過多케된것은 不可함으로 그程度를 지내치는 金額은考慮할바이며 또 이에對하야는 自然히 그限度가 잇게될것이다

五月末의狀況
大體前期同樣

朝鮮信託會社에서는 五月末로서 今期決算이 끗낫는데 今期業績은 四月末現在에依하야

金錢信託	三三、六五四千圓
不動產信託	一四、三九九
其他	四八

으로 前期決算面에 나타난

金錢信託	二七、四九九
不動產信託	一〇、一七五

에比較하면 金錢信託五百十五萬五千圓、不動產信託四百二十二萬四千圓의 增加이엇음에 고러구나今期金錢信託中에는 運用을指示한 特定金錢信託三百二十五萬圓을包含한것으로 一般金錢信託은 前期보다겨우二百萬圓의增加이며同社의金錢信託預金도 漸次不振의情勢를呈하엿다 一面不動產信託은 四百萬圓의增加를 示하엿고 今期도 大體 前期와 大差가업시 五百萬圓의補助를 編入하야 純益十萬圓餘으로推算되고 六分配當据置로豫想되다 그리고 金錢信託預金利率은 一個年五分、二個年以上五分二厘、貸出은日步二錢中心으로 運用한다

朝鮮船籍船舶
四月現在增加

朝鮮에 船籍을 둔船舶의總數는 四月末現在調査로 千百五十八隻同總噸數 八萬六千二百七噸인데 그中汽船은 二百八十一隻 同總噸數五萬六千五百二十六噸 帆船八百七十七隻 同總噸數二萬九千六百八十一噸으로 二月末現在數에比하야 汽船十隻(總噸數九百十噸)帆船十三隻(總噸數五百十噸)의各增加이엇다

大連銀大暴落
鈔票廢止說로

【大連電話】大連銀은 十三日前場 米國銀政策期待가 背景되야 百三十二圓八十錢으로低落後 大連鈔票廢止說이 傳하고잇슴으로 後場에投物이殺到하야 百三十圓이 깨여저百二十九圓二十錢의低價가잇서 九圓五十錢에止한바 이것은近來의大暴落이엇다

米生產費調查會
廿三、四兩日開催

米穀生產費 調査會는 廿三、四의 兩日 午後一時부터 農相官邸에서 열기로 決定하엿다고 有賀、田淵兩委員及 總督府에 入電이잇슴으로 田淵東拓理事는 廿日의 臨時總會出席關係도 잇서 十六日 午後三時 渡東하고 有賀委員은 十七日의 銀行大會終了를 기다려 十八日頃 渡東할 豫定이라고

正租檢查方針
當局과關係者會見

正租의强制檢查는 十一米穀年度로부터 實施케되야 이에對한總督府當局의方針도 大體決定하엿슴으로 朝鮮農會及 米穀研究會의米穀生產에 關係가잇는 各道有力者二十餘名은 十五日午後一時부터 東拓支社會議室에서 總督府當局과會見하고 當局의方針을聽取하야 이에對한生產者의 希望을말하고 懇談키로되엇다

商銀米擔保貸
百七萬三千圓減

商銀十日現在의 米擔保貸出은 二百二十萬二千餘圓、荷爲替擔保는 百萬七千餘圓으로 四月十九日現在보다米擔保는 六十八萬六千餘圓、荷爲替는 三十八萬六千餘圓合計百七萬三千餘圓의減少이나 前年同期보다荷爲替約六十一萬五千圓減에反하야 米擔保는 百十二萬五千圓增加로 米價高及先高豫想에 依한貯藏이만음을示한다

更生水組聯合總會
十六日總督府에서開催

總督府에서 設立計畫中의 水組整理計畫에基하야 乙種整理組合으로서組織하는 朝鮮水利組合聯合會는 十六日總督府에서 總會를열기로되엇다

船運賃界一層混亂
盟外船益活躍

盟外船의 活躍으로 群山、仁川으로부터 東京의去來가 漸增하야 朝鮮米運賃交涉決裂以來 小型船은勿論盟外船의 進出로 朝鮮米 運賃界는 收拾할수 업는 混亂狀態에 빠지고 數日前 群山의田中船은群山京阪間四十圓이라는 法外의低運賃으로 約四千石을 東京에 積送하는等 더욱運賃界로하야금 混亂케하고仁川群山은 從來日本內地低의朝鮮米高로 東京方面에移出하는것이 見苑無하엿든것이 盟外船의進出로因한 運賃低로最近 東京方面과 去來가漸增할향은 關係方面에 注目을 끄는다

▲鮮航同盟支部長會

鮮航同盟會에서는 四日부터大阪本部에서 朝鮮內支部長會議를 열고所屬各船會社代表도 出席한뒤朝鮮米運賃對策에對하야 協議할터이라고

經濟界消息

○全朝鮮金組聯合總會=第二回全朝鮮金融組合聯合會總會는 十四日 午前九時十分 京城竹添町朝鮮金組聯合會講堂에서 열고出席者四十四名으로總督府에서 林財務局長이臨席하엿는데 附議事項은 알에와갓다고
一、昭和九年度會務並決算報告承認의件
一、明年八月任期滿了監事四名豫選의件

○京城巡廻見本市=京城商議主催의第五回京城巡廻見本市는 參加店數十五店에 限하야알에와가든日程으로開市할을決定하엿다
▲六月十五日京城發卅日歸着 十六日(元山)十八日(咸興)廿日(城津)廿五日(羅津)廿七日(淸津)廿八日(羅南)
▲每日午前十時부터午後四時까지開市그러고北靑、會寧、上三峰、龍井、延吉、圖們、南陽等의去來閾을 돌아단길터이라고

○朝鮮商議會開催=朝鮮商工會議所 第四回定期總會는 六月下旬 京城商議에서 열豫定이로 五月二十五日까지 各商議의提案을 綜合키로 되엇다고

○送電會社無配內定=朝鮮送電會社에서는 十三日午前十時부터重役會를열고 今期決算案을附議하얏는데 依然 無配當으로內定하고 月末總會를열리라고

○東拓理事後任=東拓에서는 別項과如히 來二十日 臨時總會에서 理事及 監事의 改選을行할터인데 田淵、渡邊兩理事는 辭任하고 中野理事의 引退는 確定的이라하며 結局 東拓鑛業專務 中島氏及 本社貸付課長 佐方氏의 理事昇任이有力視되다고

今日財界 (十四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二六〇	七高
大阪期米	先限	三〇三九	一五高
ⓔ三等米	一石	二七〇	一〇高
東京一等白米	百斤	三〇・三〇	不變
正租(仁川)改良	在米	七錢九厘	[illegible]

◆市中金銀價

金	一匁賣	十一圓十錢	十一圓五十三錢
銀	一匁買	三十六錢五厘	三十三錢〇厘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	—
東新	一四五六〇	一七〇高
日產	九四〇	一二〇高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三一四四	二〇低
大阪棉花	二五三〇	八〇低
大阪人絹	六八〇	三〇高
大阪砂糖	一一九	八高
고무現	三八錢五	先二九錢〇〇

商況 (十四日)
株式 急落後에 反撥

前場少高 今前場은 도伸惱이나마 强調로조금買進되엇스니 即昨後引에比하야 東新八十錢高인百四十五圓丁、日產四十錢高인九十三圓七十錢、大新五十錢高인九十三圓七十錢에 各大引되고 朝新二十七圓三十錢一本이잇섯다

【一】▲東新(一)四五、〇(寄) [illegible]
▲日產 九三〇(寄) [illegible]

後場波瀾 後場은 東新百四十三圓八十錢 日產九十三圓丁 大新九十二圓八十錢에 一齊急落寄後不勢이다가 反撥買人氣裡大引

氣迷만深甚!

昨日부터 下支모양이나 少戾타가 戾賣物로다시 떠러지니形勢不良으로보기는 하얏스나 다시내리를일가 怯내는모양으로 上市勢에對한 信念은容易히 나오지안는 實情이엇다 東新은中野買가依然同盟觀되고 日產은 政治的으로 久原悲觀人氣가 不去하야잇는만콤 시원한 反撥은難期이리라는 觀點에 變함이업시마바라들의 氣迷만깁허가는터이엇다

强弱見解區區

强한지弱한지 輕輕히推斷할수업고 所謂구로도側으로서도 갈팡질팡하는만큼 一般의見解도區區하야 제各其强하다 弱하다떠드는모양이니 即

硬派 新甫를高價로 循環的으로 買叩된 이市勢는 氣味가 대단不良한것이事實이나 말하자면 東新의割高觀과 雜株의膨脹에 依하여 이것을狙하고賣하는때문으로서 市勢의本質은 投機心의 銷沈에依한것이라할수잇는것으로 强氣를하여금 出動의機會를 주지안는 까닭이라겟는데 取引所株割高觀의 根據는 東株六分配當과 東新이東株에 比하야 高價이라는點에 잇는듯하나 이런소리는 市勢가弱할때에 依例히나오는말로 一朝人氣가 引立되면 配當가튼것은 問題가안될것이니 氣味不良에 乘하야산나서팔면 强氣의逆襲을 當키十常八九일것으로 今後에好味를相當히맛볼수잇스리라하는 一方

軟派 東新은 中野가 無謀하게買玉을 增加식히고 賣方하는때문에 强한듯하기도하지만 이대로上進될것가지안코 增稅悲觀問題가튼것으로意外의低價를示케될지도모르는雜株中에는이미以上떠러질餘地가업는것도 잇는모양이나再次의軍需株時代가展開되기前에먼저 增稅問題도大掃除가잇슬것이豫想되는터로要는總投資의衰憊한場面을 보이기前에는恢復이업슬것으로 賬入하야 雙一買外에 他方途가업슬것이다 云云

大阪短期取組

	實方	賣方	取組高
日產	三七	五三	五九七三
東新	三三	四三	九一二〇
大新	三一	五八	七六九〇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三百十枚
▲東亞殖產七百八十五 ▲東新百五十八 ▲大[illegibl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當限落으로 入氣는乘치안코 實物로 多少旺盛이엇스나 大槪軟弱모양이고 特高로 米貨는 四、五十錢賣하얏다
▲甲五分利 一〇三七▲一回四分利 不申▲二回四分利 不申
▲佛貨四分利 一八五、五五

▲配當落

▲五月二十一日은 滿鐵舊新▲五月二十八日은 東新、日產、東電、北海道炭礦舊新、鐘紡舊新、日本油脂舊新、朝紡、東亞新▲五月二十九日은 大新、帝人、日魯、日毛▲五月三十日은 安取、速取▲五月三十一日은 朝取新舊各配當落이라한다

同電力新〇〇▲東洋拓殖〇〇▲京城電氣〇〇▲京南鐵道〇〇▲金剛山電鐵〇〇▲同新〇〇 [illegible]

期米 鈍重이나 昂進

前場伸惱 昨後場阪地三十圓二十四錢止와共히二十七圓七十八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三十圓三十一錢인七丁反高를 據하고 二十七圓八十二錢인五丁高로場을 始한後阪地三十一錢의 七番同價로結局三十三錢에出現함을伴하야七十五錢의最低로七十八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强調 後場은二十七圓八十四錢에 六丁高로 始場後三節八十錢에弛하얏스나 五節八十四錢에强하얏고 別欄가티止場하다

殘米市勢一巡?
結局保勢而已

五月一日現在 日本殘存米는 硬派의主張하는 三千七百四十二萬七千七百六十九石 即昨年同期보다의八百二十四萬九千六十二石減인 一割八分減으로 硬派의三千六百萬石의豫測說도 當을得하지못하고 軟派의主張하는 三千九百萬石說도 또한烏有에歸하고말엇다 그러나 三千七百四十萬石

南北의雨消息
그만하면洽足?

數日來의降雨는 全朝鮮을通하야 均霑는 되지못한모양이나 아즉 植付期에直面되지안흔만큼 大雨를要하는것보다도 麥類와苗板의解渴程度이면足할것으로 農家는 樂觀을呈하는모양이다 아즉도 天氣는 恢復되지안허南北의雨消息을傳함으로 以來旱騷는一掃된것도갓다 그런데市勢에는何等의影響이업시 殘存米發表의 比較的悲觀에近한것을機로한 硬派의買進으로 容易히 低落을 許하지안는다 要컨대 天災의市勢는 殘存米의目標에는近하엿다 [illegible] 多少强味를 添하야 阪地는 今朝三十圓三十錢을 示現하고 當地는 二十七圓八十錢을 示하엿스나 또한 伸惱의 狀態로 因而保合圈內에 入하는 觀이잇다 그런데 前途 需給에 잇서서는 그다지 樂觀할 餘地도 업슬모양이다 그러나 九百餘萬石이나 固定되어잇는 政府米의大量拂下가實現되지아니될지가 今後의注目꺼리이다 果如何

仁川在米減少

【仁川】去十一日現在在庫米는前週에比하야 合格米는二、一六三叺의 減少를示하엿는데 在品을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四斗入五五六六、五九〇叺 五斗入一一、六〇六叺▲白米四斗入一九、一一九叺五斗入一三〇叺▲正租叺入一九九、一八九叺俵入四三、一四五俵▲大豆二四、五一六叺 ▲小豆五三七叺(白)二、一三〇叺(粿)三四五叺
▲小麥四斗入四四、五三五叺五斗入一五〇叺▲粉末(唐箕先)九六七叺▲粟(日本)九四三叺(天津)一、五八七袋▲荏子一八二叺▲黍二、三三六俵▲蕎麥一、二五四叺▲糯白米一二五叺▲蜀黍丸六六〇袋

市場六感

株 昨前場少戾이더니昨後場更落、今前場은 또 少戾 ▲要컨대 低迷而已 이대로 쪽 위로뻬기는 힘드는모양 ▲强弱觀이 區區이나 强氣로서도 이대로 轉換되리라고 보는便은 거의업는 程度이오 買込을 기대리어사보자는 消極論인모양 ▲萬人弱氣인 此際가 絕好의買場이리라는 皮肉論도 생길지모르나 아모리 財界에 異變이 업다고 목청이 떠러지도록 소리처보앗대서자 買月標가 發見難이니 奈何? ▲總突込의破格的 暴落이 잇스면 大轉換도 可期이려니와 不然이오 少戾타가 更地로 低迷가 繼續된다면 市勢는 아조 버렷다 볼수박게 ▲사고파는 것은 自由로 누가 異議를말할것이아니나 이런場面에 잇서는 氣味에쪼차突込賣하는냐 人氣에逆行하야 惡目을買하느냐? 어듸로 向할이果然賢明할고! ▲東亞證券株式會社에서는 米豆部를新設하야 趙俊鎬商店이 十五日부터開業 株로多幸할진저

米 昨日까지 殘存米의 發表는 完了되엇다 總數字는 三千七百四十餘萬石으로 그다지樂觀할것도 업고 또悲觀할것도업다▲그러나 三千七百四十餘萬石은 硬派의觀測에接近한만큼 幾分强味▲恢復되엿든 天候는다시雨天을繼續하야 南北의雨消息을傳한다 ▲今回雨量의程度는 洽足하지는못하나 그러나 麥疇와苗板의 解渴은 洽足한 모양▲植付期에 入한後의 天候如何는 알수업는 일이지만 目前의現象으로는 그다지 憂慮할것이업다고云云▲그러나市勢에는 何等의影響이업시依然强保勢▲그러나殘存米發表의 市勢도旣히一巡하엿스니 이로부터期待할것은 그무엇? ▲市場의그自體로보아서는 特殊한强材나弱材가 突發하기外에는 此環에서 終始할모양▲當分小拗方針을取하야 섭섭푸리나하다가天災戰에入하야 本格的戰線을베푸는것이찰아리得策

各地正米

京城引返 定期의 小反撥에 追隨되야 氣配十錢高唱이나取引이進捗지안코 場面은閑況을呈하얏다 丸仁三等二十七圓五十錢四等二十七圓三十錢 一等白米二十圓二十錢

仁川引締 市場賣物로 서는 期米關係以外에는업고 殘存米數字好感의 買物이 出現하야 市況依然閑散인 ㉼三等二十七圓五十錢高 人氣이나 對日本內地取引十錢 四等二十七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一圓七十錢

釜山强含 市場賣物 三千叺은新規賣物이 薄하고賣腰强硬으로買方과의갑이 容易히 成立되지안어取引杜切로 推移되고僅히移出間과 賣需方面間에 八百餘叺의賣行이 잇슬뿐인 ⓔ三等二十八圓二十錢 四等二十七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八錢

大邱强含 與地가 品薄으로强張하고 地場持來側도 高張함으로買方은 採算上飛付買치안코閑散場面이나 氣配十錢高로堅調 ⓘ三等二十七圓六十錢 四等二十七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一圓四十錢

群山底堅 與實期에當面하야產緩和賣思惑과 賣懲入職、準騰의自氣를 誘致하얏스나 日本內地不買로 買氣不掛이지만 定期의引締로 氣配十錢高唱인 ⓢ三等二十七圓九十錢 四等二十七圓七十五錢

木浦焦付 天候恢復이나出廻가적고 定期의 浮動保合을 보고移出側이 傍觀하야 滿價에는 當用實需間에 買拾되엇스나 氣配不變唱인 ㉼三等二十九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六十錢四等二十九圓五十錢

南浦閑況 依然目前 不實不買의 無風狀態이오 氣配不變唱이나 東京側某方의 產地直接買付說이잇서 形勢를注視되엇다 ⓡ三等二十七圓九十錢 四等二十七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一圓四十錢

堂島前場伸惱

【大阪電話】東京側 地場筋의 買進으로 一段高를 呈하얏스나 神戶側 中東側 東京側乘換賣와 地場軟派의 賣唱으로 下押되어 伸惱이엇다
▲賣方 東京側乘換 地場中東側 海堀 地場正米側
▲買方 東京側別派 西側三吉側 神戶側 中東側別派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朝取取引員 株米 朝鮮取引所 [illegible] 王 [illegible] 仁川 商店

小林幹三商店 朝米 株式 仁川 [illegible]

朝取短期 株式 十四日

[illegible]

朝取期米 十四日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商品 十四日

◆日本各地期米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

金融 十四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價入價 [illegible]

米穀 十四日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十四日

◆京城綿系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카카오期變 ◆鰯油沖價 ◆鰯搾粕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